DEC 11 1981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한국일보 토론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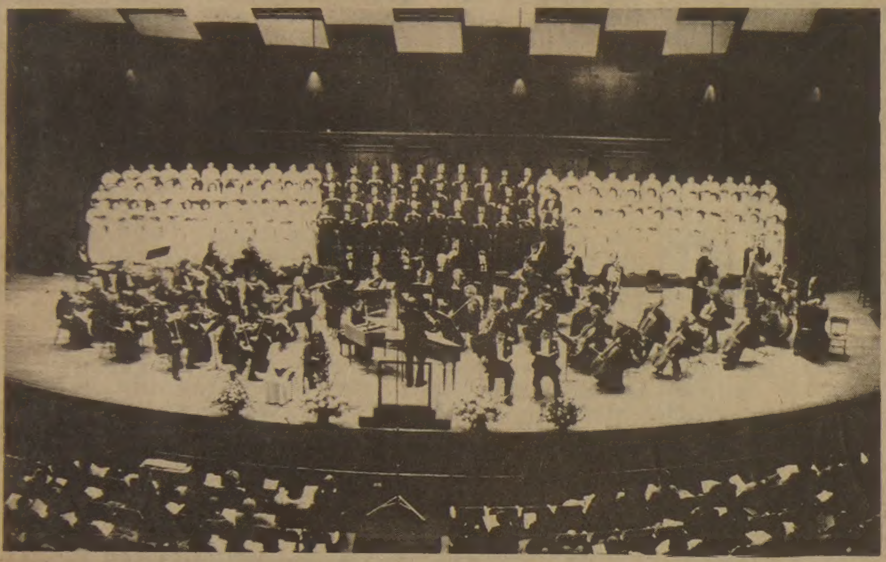
No. 691 1981년12월9일(수)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Wednesday, December 9, 1981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편집자문위원 : 윤 방 현

맘껏 구세주를 드높인 소리의 축제

한인합창단"메시아"공연 대성황

지휘·성악·기악 3위1체에 2천여청중 박수갈채



◇메시홀의 무대를 꽉 채운 한인합창단의 제1회 메시아 연주회 광경[무지개칼라 제공 촬영=전경수].

전능의 주 메시아는 4일밤 메씨홀에 모인 2000청중들의 맘속에서 다시한번 살아나셨다. 토론토의 예술의 전당 메씨홀의 무대를 꽉 채운 하얀 한복차림, 검은정장의 한인합창단의 소리 모음「메시아」는 이민생활의 고달픔에 시달리는 교민들의 영혼을 말끔히 씻어주었다. 박재훈 지휘, 노스욕 교향악단 협연의 한인합창단 제1회 메시아 공연은 아마추어 에트닉합창단으로서 어려운 대곡을 국제적 무대에서 훌륭히 연주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음악회가 아닌 한인사회의 빅 - 이벤트로 음악과 출연진의 열성이 빚은 감동은 청중 개개인의 영혼을 울렸다. 이날밤 헨델곡 「메시아」연주회가 시작된 것은 정각8시 넘었으나 전통이 스며있는 메씨홀의 3층으로된 2천7백석 청중석은 거의 빈 자리없이 메워졌다.

반주를 맡은 노스욕교향악단 40여단원들뒤에 흰한복과 가슴에 빨간 카네이션을 단 여성합창단원이검은 정장의 베이스및 테너파트의 남성단원들을 가운데로 하고 왼쪽에 쏘프라노, 오른쪽에 앨토가 자리잡았다. 독창자들인 앨토 배정숙, 쏘프라노 이정애, 테너 옥인걸, 베이스 신경욱은 무대전면에, 하프시코드반주의 유회자는 지휘자 바로 앞에 자리잡았다.

군데군데 자리잡은 캐네디언 청중들도 우선 깨끗하고 화려한 단원들의 모습에 매료된 듯했다.

제1부「예언, 탄생」, 제2부「수난, 속죄」, 제3부「부활, 영생」, 전 43곡, 의 오라토리오「메시아」는 지휘자 박재훈 박사의 힘있고 장엄한 지휘로 2시간반동안 연주됐다.

테너의 영창에 이어 시작된 합창「주의 영광」은노스욕교향악단의 다소 불안한 반주때문에 비롯됐던청중의 긴장을 풀어주었고, 한 캐네디언 청중이 "생각보다 훨씬 합창의 소리가 좋다. 아마추어 합창단이 난곡을 이 정도로 해낼 줄은 몰랐다"고 속삭이는 소리도 들렸다.

제1부 5곡 연주가 끝나자, 지휘자는 청중석으로 돌아서서 "박수는 끝난 다음에 쳐주시오"하고 매곡 끝마다 치는 청중의 박수를 제지시켰다.

제1부에서 특히 아름다웠던 것은 유회자씨의 하프시코드와 어울린 쏘프라노 이정애의 영창「주는목자요」였다.

제1부 마지막곡인「그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벼워」에 이르러 합창은 무르익었다. 청중은 지휘자의 손끝아래 재현된「메시야」탄생의 예언, 그의 탄생, 천사들의 찬미, 목자의 화답소리를 영혼속에다시 심은듯 했다.

휴식이 끝나고, 이어 진 제2부「수난, 속죄」서는 연주상 약간의 수난이 있었다. 앨토의 영창「주는 멸시를 당하셨네」끝부분과 합창「진실로 주는 괴롭을 받으셨네」의 서곡부문에서 심포니의 연주에 만족치못한 지휘자가 연주를 중단시킨 것. 웬만한 지휘자로서는 메씨홀에서 가지는정식연주를 중단시키고 다시 시작하는 일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로서 이는 지휘자의 음악에의 자세가 나타나는 것이기도 하다.

제2부 마지막곡인 유명한「할렐루야」의 전주가시작되자 청중들은 너도나도 일어서서 연주와 함께 청중들의 감동도 절정에 이르렀다.「할렐루야」곡이채 끝나기도 전에 쏟아지기시작한 박수갈채는 오랫동안 그칠 줄을 몰랐다. 하늘의 영광이요, 합창단의 승리의 순간이었다.

제3부「부활, 영생」에서는 특히 베이스 신경욱의「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라」가 뛰어나게 감동적이었다.「나팔이 울리리라」에 이어 합창「죽임 당하신 어린양, 아멘」으로 대단원의 막이 내리자, 1, 2, 3층을 꽉 메운 청중은 일제히 일어서서, 계속된 우뢰같은 박수에 지휘자및 독창자들은재등장, 영광을 교향악단과 합창단에 돌렸다.

지휘자등이 재등장 했을때 5명의 어린이가 꽃다발을 하나씩 안겨 주었고 지휘자는 꽃다발을 다시 관현악단 악장에게 건네주기도 했다.

백효증(한인장로교회 성가대 지휘자)씨는 "비록연주도중 교향악단의 연주에 실수가 있긴 했지만 합창은 뛰어났고, 무엇보다 메시아같은 대곡이 한인들에 의해 메씨홀같은 대 무대에서 감동적으로 연주됐다는 점에서 한인들의 자랑거리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하프시코드 반주자 유회자씨는 "같은 음악인으로써 이번 연주의일익을 담당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아마추어 합창단원이 제한된 여건속에서 이만큼연주해 냈다는 것은 지휘자 박재훈 박사를 비롯한 연주자들의 공로이기도 하고, 한인 코뮤니티의 단결력을 드러내준 것이다. 이번 공연으로 노력만 하면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새삼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합창단 관계자는 "이번 공연을 위해 지휘자를 비롯, 전합창단원은 물론 뒤에서 뒷바라지한 사람들의 수고는 이루 다 표현할 수 없다. 여름휴가도 없이 연습한 보람이 나타나서 작곡자가 의도한 뜻이 청중 에게 전달됐기를 바란다. 앞으로 교민들의 보다 큰 성원이 있을 경우 제2회, 제3회 메시아 공연은 보다 성공적으로 행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첫여성당수 후보등장

해밀턴 의 신참콥스의원

◇쉐일라 콥스의원

온타리오주 자유당 당수직 출마를 선언한 최초의 여성의원이 있다.

해밀턴지구출신의 쉐일라·콥스 주의회의원은 7일 퀸즈팍 기자회견에서 당수직 출마를 선언하고, 출마동기로 "온타리오주는 비젼을 가진 지도자"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온타리오주 자유당이 정신적으로재무장됐음을 알릴 시기가됐다고 밝혔다.

올해 29세의 쉐일라·콥스의원은 77년 의원선거에 출마, 14표차로 낙선했다 지난 3월 총선에서 당선된 초선의원이다.

지금까지 당수직 출마의 뜻을 편 자유당의원은 4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의회 은행폭리 조사

고금리로 은행이윤 50% 이상 증가

(오타와)연방의회는 캐나다은행들의 과잉이익금조사를 위한 소위원회를구성한다고 맥케큰 재무장관이 7일 밝혔다.

은행들이 폭리를 취하고있다는 보수당의 재정전문가 미셀·윌슨씨 발언에 이어 연방의회가 소위원회를 구성, 은행내부 조사를 하는 것을 재무장관이 동의한 것이다.

캐나다은행협회는 이 보도에 즉각 반응, 조사를 환영한다고 발표했다. 맥컨토시 은행협회장은 은행의 폭리 때문에 이자율이 높다는 주장에 대해 "은행이윤을 제로로 해도 이자율을 겨우 1%정도 밖에 내릴 수 없다"고 말했다.

보수당의 재정문제전문가 윌슨씨는 의회에서 "시민들은 은행의 과당이윤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주 발표된 81년도은행이윤은 CIBC의 경우 작년 동기보다 61.5% 늘어났고, 로얄뱅크의 경우도 50%가 늘어났다.

윌슨씨는 재무장관의 동의를 환영하면서 보수당의원들은 은행이 폭리를 취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신민당의 에드워드·브로드벤트 의원도 이를 환영하면서, 이 은행들의 폭리는 세금으로 거둬 들여 주택개발에 쓰여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브로드벤트 의원은 은행 고금리로 17억달러의 이윤을 거둬들이는 동안 수천세대가 주택모기지에 시달렸다면서 은행이익금중 적어도 7억달러가 주택 개발 계획에 돌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1인당 국민수입 $1,067

신산업국 대열에 진출

미국무성보고서(80년 지구 총 생산)에 의하면 남한의 국민총생산고(GNP)는 80년 42,424백만달러로 세계적으로 32위인 반면 북한은 15,908백만달러로143개국중 57위에 머물었다.

한편 80년 남한의 1인당 국민평균수입은 1,067달러 80로 62위, 북한은 823달러로 80위였다.

보고서는 8나라— 한국, 타이완, 홍콩, 싱가폴, 그리이스, 폴튜갈, 브라질, 멕시코— 를 "신산업국"(New Industrializing Countries)으로 지명하고, 이들 국가들이 발전한 주원인으로 자국의 수많은 값싼 노동력을 이용, 생산비를 적게 들여 물건을 생산, 비교적 자유로운 세계시장에 생산품을 값싸게 공급한데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세계적으로 자유무역의 풍토가 조성되지 않았더라면 이들 국가들이 이토록 급성장하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솔리대리티 입장난처

대화내용 비밀녹음 공개로

(바르샤바)비밀리에 녹음된 폴랜드전국노조 솔리대리티의 지도자들의 대화중 일부가 공개, 솔리대리티의 입장을 곤란하게 만들었다.

7일 전국라디오방송으로 공개된 녹음테이프중엔 솔리대리티가 궁극적으로 는 폴랜드정부를 전복해야 한다는 강경파 즈비뉴 · 부작의 말이 기록됐다.

온건파인 렉·발렌싸도노조와 정부와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하다고 발언했고, 지역 노조장인 안드레이·소비에라는 "솔리대리티가일부 행정부서를 담당한뒤차차 유, 주정부를 제거, 현체제하의·정부가 아무런일도 못하고 있음을 깨 닫게 해줘야 한다고"말했다.

녹음테이프 공개로 솔리대리티 노조 지도자들이권력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라고 밀어 부치려는 정부측으로서는 상당히 유리한 선전자료가 되는 셈이다.

영어강의 종강

한국노년회

토론토의 한국노년회(회장 정인기)는 오는 22일(화)하오6시 노년회사무실(20 Mobile Dr)에서 영어학교 종강식을 가진다.

개강은 새해 1월5일이며 교실위치는 Grenoble Dr. 국민학교(돈밀과학관 건너편 그레노블·드라이브)이다.

(문의전화 755-8079)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믿고 살수있는
「로렉스 지정판매 대리점」
B) 534-7791, 534-9977
653 BLOOR ST. W(한국관앞)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상점보험

B) 497-3800
R) 284-9052

여러분의 단골백화점
미도파로 오십시요.
미도파백화점
B) 536-1692
R) 245-3539
454 BLOOR ST. W.
TORONTO. ONT.

캐 나 다
외환은행
364-2890
2 FIRST CANADIAN
PLACE SUITE 1140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 제일식품 ■

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단풍식품을 인수해서 **제일식품**이란 새 상호를
갖고 여러분께 봉사케 되었읍니다.
그간 해밀톤에 거주했던 관계로, 토론토에 대해서는
아는바가 많이 없으나 오직 꾸준하게 성실히(1주일
내내 OPEN) 일할것을 교민께 약속드립니다.
김 덕 기 올림

★ 배달합니다.
★ 7 DAYS OPEN(오전10~오후10)
★ 새로 PARKING LOT마련
712 BLOOR ST.W.

제 일 식 품(구 단풍식품)
☎ : 532-1054
아리랑하우스 옆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St. George Street
TORONTO, CANADA

37년만에 극적 부자상봉

중공땅 안노인 서울 오다

(울진 8일=연합)37년간 중공에서 거주하던 76세의 한국인이 한국 적십자사의 도움으로 꿈에 그리던 한국으로 되돌아왔다.

안봉정노인은 11월 30일 홍콩을 경유, 서울 김포국제공항에 도착, 37년간 헤어졌던 아들 안호열(48)씨와 눈물의 상봉을 했다.

안노인은 40년 아내와당시 6살이던 호열씨를 데리고 가난에 찌들은 고향을 떠나 만주로 갔다.

만주 길림성에 정착한후 열심히 일한 그는 30명 의 일꾼을 거느린 대지주가되었다. 2차세계대전이 발발하자 그는 아내와 그 아들을 한국에 보내고 자신은 만주에 남아 재산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이 45년 패망하자, 안노인은 모든 재산을 잃고, 가족들과의 연락마저 끊기게 되었다.

그의 아내는 홀로 그 아들을 양육, 79년 남편을다시 보지 못한채 죽었다.

아들 호열은 79년12월중공에 거주하는 친척을 통해 처음으로 아버지 주소를 알아내어, 그후 아버지와 계속 서신을 주고 받았다.

그러던 중 지난해5월 한국적십자사로부터 아버지를 초청할 수 있다는 언질을 받고, 호열씨는 필요한 모든 구비서류를 보냈다.

비록 중공은 남한과 외교관계 수립이 되어있지않으나, 안노인은 중공 당국으로부터 고향을 방문할 수 있는 특별허가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취중운전단속강화
스폿·첵실시 3일째

취중운전 단속3일째 인 3일 메트로경찰은6,420대의 자동차에 대해 스폿·첵(Spot Check)을 실시했다. 이중 20명이 부적격운전자(impaired driver)로 고발됐다.

스폿·첵을 받은 총계는 작년 같은 기간의 4,420대보다 2,000대가 늘은 것으로 작년에는 같은 기간에 한건의 부적격운전자도 적발하지 못했다.

스폿·첵은 온타리오 도로교통법에 준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경찰에게 언제든지 자동차의 정비상태를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밖에 스폿·첵 이외에서 적발된 부적격 운전자는 41명이고, 300명은 싯·벨트 불착용으로 걸렸다. 이 숫자도 작년의 2배가넘는다.

5돌자축파티
한인신용조합

토론토한인신용조합(이사장 한상훈)은 창립5주년 및 사무실 확장이전을 자축하기 위해 교민들을 초청한다. 일시는 11일(금)하오5시~8시까지. 장소는 동신용조합(641A BLOOR St.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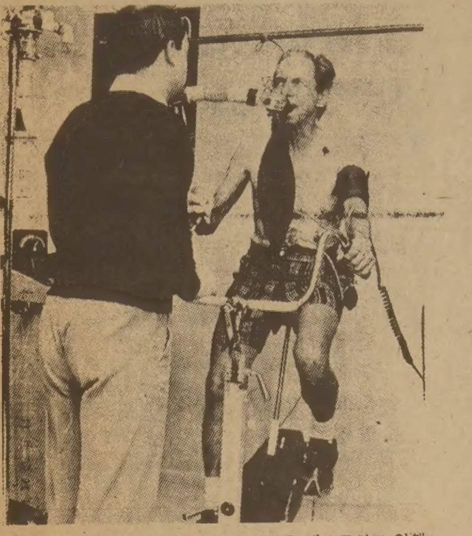
신용조합의 간부진은 다음과 같다.

이 사 장 : 한상훈
부이사장 : 김학량
전무이사 : 이홍렬
총무이사 : 윤호영
이 사 : 김정환
대출위원 : 김창번 심재환 윤여경
감사위원 : 김영준, 전병웅
상 무 : 김연수

음주운전은 여러분의生命과 財産을 위협 합니다.

사망률 제1호 심장마비

연간 사망자중 반이상 차지



◆심장기능이 약화된 노인의 심장을 테스트하고 있다.

미국의 연간 사망자 가운데 절반이상은 심장마비로 사망하고 있다고 「전국건강연구소(NIH)」가 최근에 조사결과를 밝혔다.

NIH발표에 의하면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자수는 암으로 인한 사망자수보다

"암"사망자수보다 3배나 많아

약3배나 많다.

심장마비의 주원인은 동맥경화증이라고 밝힌 전국건강연구소는 해마다 85만명 이상이 이때문에 사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자의 4분의1이상은 나이가 65세미만이다.

심장병은 개인의 생명을 앗아갈 뿐만 아니라 임금상실, 생산성 하락, 의료비 등의 여러가지 이유로 연간 5백억달러의 재정적 손실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NIH는 밝혔다.

심장마비의 초기증세는 가슴중앙에 고통을 느끼거나 때로는 목과 왼편어깨 혹은 왼편팔에 까지 통증을 느끼는 것이다. 그러나 통증이 없이 갑자기 발생할수도 있다.

심장마비가 발생했을때는 즉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것이 상책이며 구급차가 도착할때까지 인공호흡을 시키면 환자에게 좋다고 NIH는 설명했다.

심장마비에 걸리는 요인인 유전과 나이는 어떻게 할수 없으나 흡연과 고혈압등은 치료를 통해 위험률을 저하시킬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간女性

◆섹시한 의상— 2일 런던의 한 의상쇼에서 선보인 내년봄 스타일의 하나.

제5계절 할일 많은 한국인학교

김숙희 (씨알한국인학교 부교장)

◇김숙희씨

지난해 어느 토요일.

글짓기 시간에 아이들에게 짜기와 가장친한 동무에 대해서 글을 지어보라고 한 일이 있었다. 이제겨우 한글을 읽는 아이들이 한글로 글을짓는다는 애로점을 생각하여 자기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있는 소재를 채택해주기에만 신경을 썼을뿐. 나에겐 특별한 목적이있어서"내동무"를단원으로 채택한 것은 아니었다.

그당시 내 반에있던 아이들은 이곳 학년으로 4,5 6학년으로서 거의가 다 자기반에서 뛰어나게 공부를 잘하고 있는 아이들이었다.

열심히 써놓은 글을 하나씩 읽어내려가다가 나는 이때까지 생각해본 적이없는 사실을 발견해냈다.

90%에 해당하는 아이들의 제일친한 동무는 자기들과 피부색이 같은 한국아이. 아니면 일본, 중국… 이런식의 비례로 교우관계를 맺고있는 것이다. 꼭서양아이들과 제일 친해야된다는 이유는 없겠지만 아이들이 어째서 이런통계를 나에게 안겨다 주는 것인지를 생각해보지 않을수없었다.

"선생님, 내코는 왜 이렇게 납작하지요?"

"선생님, 학교에서 친구들이 잘 놀아주지 않아요."

"선생님, 엄마 아빠가 없는동안 누나와 둘이서만집에 있는것이 싫어요."

"선생님, 우리 담임선생님은 심부름 시키는일을 나에게는 시키지 않아요?"

"선생님, 우리 담임선생님은 왜 나에게는 관심이 없지요?"

이렇게 불평과 질문을던져오던 아이들을 다시한번 생각해 보아야겠다는 충동이 일어났다. 학교에서 공부만 잘하면 완전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이왕 이렇게 남의 나라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 생각이라면 우리는 아이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한글을 익혀주고, 한국인의 긍지를 심어줌은 물론이지만 모여드는 아이들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 과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 역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인학교에서는 너무도 할 일이 많다.

"우리는 이층침대에서 원숭이들처럼 뒹굴고…" 하는 여름캠프 다녀온 후 쓴 2학년 여학생의 이 글은 여름캠프를 내년에도 계획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한국음식과 한국생활 습관으로만 자라나서이곳에 살면서도 포크와 나이프를 잘 사용치 못하는 아이들에게는 이곳 음식 먹는 방법도 일깨워 주어야겠고, 한국가정에서 자라고 있기 때문에 이곳 생활에 눈이 어둡지나 않을까 염려되어 부지런히 뉴스에 귀를 기울이고, 신문을 읽어 새 소식도 알려주어야겠고, 한국아이들이기에 영어단어 사용에 제한이 오지 않을까? 실력이 향상되지 못하고 있지나 않나? 염려되어 그 뒷바라지도 해주어야 겠고….

너무나 할 일이 많은 곳이 한국인학교이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에 용기를 내어 우리는 엄마품에 안겨드는 모든 사랑하는 아이들을 안아줄 준비를 하고 있다.

팔과 팔을 맞잡아, 있는힘 다하여 팔을 늘어뜨리고 펴서 커다랗고 둥그런 엄마품을 만들도록 우리 한국인 학교들은 노력하고 있을 줄 안다.

참으로 할일 많은 곳이 한국 인학교이다.

교민동정

◆정영모(탁구협회 회장) =지난5일 한인YMCA에서 가진 탁구협회 임원및 이사 친선대회에서 차선행이사, 박두화이사와 함께 A조를 구성, 우승했다. 준우승은 송광호 부회장, 박태조 이사, 석종윤 이사팀.

탁구협회를 토론토 체육회 산하단체중 보다 실속있는 단체중의 하나로 만들어놓은 정회장은 "탁구협회 연말잔치에 많은 회원들의 참석을 바란다"고. 연락처 : 922-9435.

◆이주연(성악가) : 쏘프라노성악가로 명성이 높은이 여사는 로얄·컨서배티의 성악교수로 나가고 있다. 이번에는 에드먼턴·심포니의 초청을 받아 오는 10일 11일 양일간 에드몬톤에서 공연될 "메시아"의 쏠로리스트로 출연하게 된다.

◇이주연 여사

한국일보 533-2361

〈소 론〉

실업인 협동조합 설립 ②

김 학 량(한인신용조합 부이사장)

2. 협동조합의 조직

협동조합의 조직은 그구성조합원의 성격에 따라생산자협동조합과 소비자협동조합으로 구분된다.

앞엣 것은 조합원이 생산한 상품을 적기에 적가(適價)로 판매하며, 원료공동구매를 통하여 생산코스트를 절감하자는데 그설립목적이 있으며, 뒤엣것은 소비품의 공동구매를통한 가격과 질면(質面)에이득을 얻는데 목적이 있다.

이처럼 조직형태가 목적하는 바에 따라 여러 형태로 조직할 수 있으나 필자는 이번 우리의 실정을 감안하여 실업인 협동조합의 조직에 관하여 주로 언급하기로 한다. 실업인 협동조합을 조직 설립하는데는 두가지로 나누어 고려할수있다.

첫째, 기존실업인 협회를 존속시키면서 별도로협동조합을 설립하는 안과,

둘째, 협동조합 설립 과동시에 실업인협회를 조합내로 흡수하는 안이다.

앞으로 협동조합이 운영해야할 사업에 대하여 뒤에 언급하겠지만 조합의사업범위가 광범하여 현재의 "실협"의 업무는 협동조합내의 지도부에서 수행하는 업무와 중복이 되는 사업인 고로 협동조합이 조직된다면 실업인협회는 건설적 해체가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므로 둘째안을 좀더 상세히 고찰해 보기로하자.

사실 실업인협회의 설립은 회원에게 많은 기대를 주었으며, 역대 이사진과 회장단의 노고의 결과로회원의 단합에 성공하였다고 본다.

이처럼 회원이 단합하게 된 저변에는 무엇인가 불만을 해소해 보고, 권리면이나 경제면에서 실리를추구하자는데 의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모아 충분히 과시는 하면서도 회원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지 못하였음은 협회의 설립성격에서부터 증명되듯이 많은제약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처럼 성공적으로 단합된 힘을 협동조합이 설립된다 하여 자동 해체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며 이를 탈바꿈하여 협동조합원으로 가입하게 한다면그 세력을 이용하여 더욱 강력한 협동조합의 조직이가능할 것이다. 그 세부적절차에 대하여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즉 실협이 일년간 받는 회비를 최저주식으로 하여 협회원 전원을 협동조합에 자동가입시키는 방법이다. 이 경우에 최저 출자액이 소액이라 출자총액이 미약하다고 볼 수 있으나 처음부터 개인별 출자액을 높여 놓을 경우에 특수조합원만 이용하다 보면 소업자들은 자연 탈락되기쉬워 이는 협동조합정신에 위배되는 처사이며, 앞으로 의 발전에 타격이 있을 것이다.

조합원의 출자액에 대하여는 사업확장과 더불어증자불입이 가능하며 계획적이고 기술적인 운영관리로서 공신력이 높아짐에 따라 자발적으로 모두가 참여하여 점차적으로 자산을 증대시켜 나가야만 전망이 밝아질 것이다.

3. 실업인협동조합의 사업

A. 신용사업

이 사업은 조합원에게저축운동을 전개하여 절약정신을 일깨우고, 하루 속히 자기자금을 마련하는데 상호협조하며, 융자를 통하여 상호 편의를 제공 하는 사업으로서 협동조합의 고유적이고 기본사업중의 하나이다.

토론토에는 한인 신용조합이 설립되어, 그간 착실히 발전되고 있음은 모두가 잘 알고있는 사실이 며, 이를 이용하는 조합원이대부분 상점을 경영하는 자이므로 사실상 실업인신용조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계속)

〈1982년도 캐나다 예산안 해설〉

RRSP연간 $3,500로 제한

부양가족 배우자와 자녀에 국한

회계사 심상수제공 (Mintz and.Partners근무)

◇심상수씨

○등록제도(Registered Plan)

정부는 종전의 연평균소득계약(Income-Averaging Annuity Contracts)제도를 전적으로 폐기, 혼란을 피했다.

81년 11월 이후에 IAAC를 사는 사람은 82년 12월까지는 계약해야 한다.

○이윤체불계획(Deferred Profit-Sharing Plans)

81년11월부터 DPSP를 가진 주주들에 대한 기부금의 세금감면 혜택은 없어진다. 은퇴연금(RRSP)도 3천5백달러로 제한한다.

DPSP에 가입한 사람은 RRS P를 가진 사람과 동등하게 취급된다.

○은퇴연금 한도액

주주, 또는 회사중역들이 은퇴할 때 받는 퇴직금을 은퇴연금으로 전환, 세금면제 대상이나 81년11월부터 금액을 경력1년에 3천달러로 제한한다.

○세금연기안

82년 소득이 갑자기 오르는 사람(전년도보다 110% 이상의 소득자)은 세금의 50%만 내고, 나머지세금은 추후로 연기할 수 있다.

이 혜택을 받는 사람은 연기된 세금과 이전소득을 인플레이션율에 따라 다시 조정된다.

○건축조합

종전에 빌딩이 완성되기까지에 일어난 선전비, 법적수속비, 이자, 행정비등을 건설비에 포함, 세금면제를 받았으나 81년11월12일이후는 순수건축비만 혜택을 받게 된다.

따라서 주택건설 업자에게 타격을 주어 주택 건설의 부진이 예상된다.

○비동거 부양가족 조항

82년부터는 외국에서 사는 부양가족의 세금감면혜택의 범위를 줄여, 배우자와 자녀에게만 해당시켰다. 손자, 부모, 형제들은 부양가족에서 제외된다.

○주택세 감면 1가구당 1동

종전까지 배우자 소유, 또는 자녀소유의 주택까지 세금감면 대상이었으나 82년부터는 이를 수정, 부부에게 1동만 인정하고, 18세이하의 자녀 소유주택은세금면제 대상에서 제한, 1가구당 1동만 인정받게 된다.

○실업보험

실업보험율이 내려, 종전 피고용자가 지불하던 $100당 $1.80에서 $1.65로줄었다. 고용주가 지불 하던 $100당 $2.52도 $2.31로 줄어들었다. —끝—

[편집자주 : 심상수씨가 제공한 캐나다 예산안해설은 그 개요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조항만 취급했다. 이 밖에 중소기업에 관한 조항등은 전화 787-0151 Mr. 심에게 직접 요청하면 구할 수 있다.]

동우연말파티

동우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저물어 가는 이해의 마지막 우리들의 동우연말잔치를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아오니 우리 모두 참석하여 즐거운 회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일 시 : 1981년12월26일(토)오후7시~오전1시
장 소 : 스카이라인 토론토호텔(볼.룸"A"2층)
주 소 : 655 DIXON RD
식 사 : 부페
밴 드 : 권순근악단일원
입장권 : 이사, 임원들이 배포중임
연락처 : 222—5370(총무 김남용)
270—1531(기획조사 정기영)
759—8349(섭외 김진현)
439—7093(체육 신우원)
746—4220(문화 조국현)

※경품은. 한국왕복항공권.(부부) TV. 시계등 다수선물을 마련하였음.

토론토동우회 이사, 임원일동 드림

한국인의 도매상
한인연합상사

"소문없이 싸게팔며 봉사하는 도매상"

— CASH & CARRY 에 한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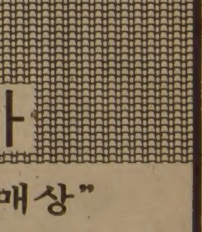
		Special
Chocolate Bar (Reg)	36's All Flavour	$ 9.49
Glad Garbage Bag	10's	33.75
Canada Dry (Ginger Ale, Club Soda, Tonic Water)		5.49
Wilson Crush (Orange, Grape, Cream Soda Etc.)		5.29

◎ 약간의 세일즈맨 모집

그 외에도 다양한 품목에 대하여 염가특별 대매출을 실시중

한 인 연 합 상 사

251—6578 U.K.L.CASH & CARRY 27 RANGEMORE DR.TOR.



연상의 여인이 바람직?

킹여사, 생리적 특성을 이유로들어

연상의 여인과의 사랑이나 결혼이 행복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논란이 되어왔다.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결혼의 조건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나이가 많아야 한다는 관습때문에 연상의 여성과의 결혼이 타부시 되어왔었기때문이다.

최근 이 타부에 반기를 들고 나온 여성이 있다. 일간지 「몬트리얼·가젯」(the Montreal Gazette)의 가정란 담당부장(editor)이며 실내장식 전문잡지 「데코막(Decormag)편집자인 아나벨·킹여사.

그녀는 최근 〈연상의 여성과 연하의 남성과의 관계〉라는 책에서 "여성의연령이 남성보다 많은 부부, 혹은 연인관계는 옛부터건재해 보통 전통적인 남성이 여성보다 나이가 많은 관계보다 더 지속적인 행복한 관계를 유지한다고주장했다.

그녀는 남성우월 사회에서는 이같은 결합이 남성의 여성지배에 위협을 주기때문에 이같은 관계를유지하고 있는 본인들도 그들이 부적당한 무엇을 하고 있는 듯 생각하며 있다고 주장했다.

캐나다통계국의 76년 통계를 보면 186,884건의 결혼중 7%가 여성이 연상인 결혼이고 통계상에 나타나지않은 숫자도 상당하다.

현재 58세인 킹여사는자신이 연하의 남성과 사랑을 나눈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녀는 35살에 질식할것같은 12년의 결혼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10살아래인 25세의 연인 마크를 만났다.

그녀는 책에서 "그것은 내가 동등감, 어떤 면에서는 우월감을 가지고 애정관계를 가진 첫번째 경험이었다고 실토했다.

그녀의 책에는 이같은 "연령의 역전"관계를 유지해 오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적나라하게 소개하고 있다.

프레드릭·쇼팽, 죤·트라볼타, 벤자민·디스라엘리 레이먼드·촨들러, 버트·레이놀즈와 이슬람교 창시자 마호멧과 같은 유명인들은 그들보다 20살이상의 여인들과 사랑을 하거나 결혼, 행복하게 산 남성들의 예이다.

그녀가 주장하는것은 킨제이보고서와 그밖에 성문제연구가들에 의해 밝혀진 것 같이, 여성의 성욕은남성처럼 급격히 감소하지않는다는 것이다. 여성의 성욕이 60세에도 30세와 거의 다름이 없이 왕성한 반면 남성은 10대이후 내리막 길을 걸어 60세가 되면 같은 연령의 여성과 상대가 되지 못한다.

높은 이혼율에 대한 해결책으로 "연령역전" 결혼을 들은 셈이다.

이런 연령역전 관계에있는 여성들중엔 직업여성들이 많으며, 강한 자아의식을 갖고 독립적이며 주위의 흥미를 끌려는 경향이 있다. 이런 여성들의 파트너(연하의 남성)들은 흔히 편견에 사로 잡히지 않고 도량이 넓으며 예쁘거나의존적인 인형같은 여성보다는 지적으로 동등하고 친구처럼 될 수있는 여성들에 더 관심이 있다.

아직도 이러한 관계를타부시하기때문에 이런 커플은 보통 친구로 관계를 시작, 모르는 사이에 깊은사이가 된다고 킹여사는 말했다.

◆미스 각선미－1일 런던에서 미스 각선미로 당선된 트레이시·보울링양. 상금은 1천9백50달러.

IUD 임신부에 위험

임신초기에 제거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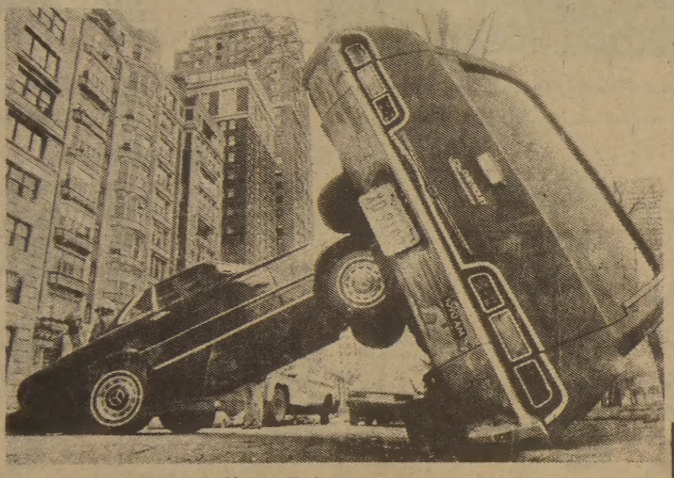
IUD(자궁내 삽입피임기구)사용여성이 임신초기에 이를 제거하지 않을경우유산의 위험이 크다고 한 산부인학 전문잡지가 최근 밝혔다.

이같은 보고는 2년동안 미국 16개 병원에서 연구된 결과이다.

이 보고는 임신중에 IUD를 계속 사용하고있는 여성은 다른피임 방법을 이용하는 여성보다 3배나 더 유산할 가능성이 크다고밝혔다.

이 보고는 또 임신 초기에 IUD사용을 중단하는경우 위험은 10배로 증가한다고 말한다.

미정부의 통계에 의하면 2백만명의 미국 여성들이 98%의 피임효과가 있는 IUD를 사용하고 있다.



▲경찰관도 이해할 수 없는 교통사고－시카고의 이스트레이크쇼 거리에서 차사고가 일어났는데 경찰관들은 이와같은 장면이 어떻게 해서 일어날 수 있는가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들이었다.

한국일보·토론토
구독은
533 2361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0. yr. $8. mo. 구독료(선금)연 $90, 월$8, 영구구독 $500, ISSN03192962, 2nd Class Mail 5248,(416) 533－2361～4

한국관
연중무휴
오전11시 새벽1시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회의실 마련
결혼피로연등 회의실 60석, 각종회의석 준비!
단체손님 환영.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성심성의껏, 염가로
봉사합니다.
531 0277
대표 나옥녀
한국관

한국일보
광고 문의처
533－2361

O.K. Auto Body
Call 251-9889
Hee-Sam Kim Res. 242-4551
138 SIXTEENTH ST.
M8V 2K1
WE ACCEPT ALL INSURANCE WORK

〈매일연재 소설〉

사슴을 먹고 사는 사람들 ⑭

팔리·모왓 원작, 원 재 훈 옮김

그 2~3주후에 가꾸미는 윈디베이의우리집으로 나를 보러 왔다. 이유인즉 그는 우리가 곧 떠나간다는 것을 알고 우리들을 달래서 무엇이든지 남기고 가면 모두 가져가겠다는 것이었다.

그를 다시 보는 것은 달갑지 않았다. 왜냐하면 자기 종족을 죽이는 희생을 강요해서까지 욕심을 채웠던 믿기 어려운 그 의 행동 때문에 드디어 나는 속이 메슥거리는 증오심이 났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에게 돌아가서 다시는「찾아오지 말라고 무뚝뚝하게 명령했다. 나는 다른 할미우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그 타격은 가꾸미의 위신에 대단히 컸던것이다 그러나 그는 여행용 텐트를 가지고 단 이삼백야드 밖에 나가서 우리들이 완전히 떠날 준비가 될 때까지 거기서 머물러 있었다.

마지막날에 나는 가꾸미를 더 분명한 투시력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 나는 드디어 저변에 깔려 있는 그의 비극의 일부를 이해하기 시작했고, 이 사람의 분명한 악질성을 조금은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나의 증오심은 사라지고, 그대신 나는 예상하지 못했던 그에 대한 측은함을 느꼈다. 휘장처럼 가꾸미 주위를 감싸고 있던 악마같은 장막이 이제 노출되었다. 오랫동안 그에게 닥쳤던 불행의 깊이를 보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캠프로 갔다. 그와 헤어지는 마당에서 그가 나에게 내가 그전서부터 추측하고 있었던것을 한마디로 재확인할 수 있었다.

가꾸미는 컴컴한 텐트안에서 잠옷을 꿰어입고 쭈그려앉아 있었다. 드디어 그가 말문을 열었다. 그는 나에게서 고개를 돌려 텐트를 이은 이음새를 통해 들어오는 실같은 밝은빛에 눈을 고정시켰다. 그는 자기 종족이 행복했던 때를 힘주어 맹렬한 말투로 이야기했다. 그리고는 얼굴을 나에게로 돌려 똑바로 쳐다보았다토.

"여보, 당신 백인이여, 우리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소? 당신이 리버오브맨의 강둑으로 내려가면서당신은 내 국민을 보지 않았소? 당신은 들판에 솟아올라온 산봉우리처럼 많은 죽은 사람들의 무덤이 천지를 뒤덮고 있는 것을 보지 않았소? 그리고 당신은 우리사람들이 어떻게죽어갔는지 듣지 않았소?

"그들의 망령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갖고도 더 욕심이 나서 우리들의 생명인 사슴까지 빼앗아 가고, 우리 가슴속에있는 큰 고통을 주어서 아직도 우리를 죽이고 있는 병을 준 백인들인 카부루나이트에 대하여 말해주고있소!"

"당신들은 부자요! 당신들 백인은 굉장한 부자들이오! 당신들은 우리들보다 홍차와 총과 실탄이 월등히 풍부하오. 그렇지만 우리들도 부자요! 무덤도 많고, 원혼도 많지요. 이것이 모두 당신들의 탓이란 말이요"

이것은 아주트의 아들입으로 내가 직접 들은 마지막 말이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가꾸미의 마귀같은 성격의 강렬한 힘을 이해하고, 그렇게 그를 만들었던 그 사기술의 광대무변함을 이해할 수 있었다.

나는 그 늙은 사람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것, 즉 그를 조종했던 마귀의 교활함을 깨달으면서 그의텐트를 떠나왔다.

그것은 이땅에, 이 사람들의 육체에, 그리고 이할미우트의 한 사람인 그의 마음속에 가져다 준 선물인 백인들의 죄악이었던것이다.

15. 비석과 망령들

1948년 6월말 윈디리버를 지나는 사슴의 봄 이동이 거의 끝나가자앤디의카리브 연구가 잠정적으로중단되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렌의 북쪽까지 사슴을 쫓아가기로 작정 했고 우리는 목적지를 앙쿠니레이크로 선정했다.

앙쿠니는 그레이트레이크와 리버오브맨의 중간에 있었고 두가지 이유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선택했었다. 첫째 그곳은 할미우트가알고 있는한 가장 큰 사슴떼가 몰려온 곳이었으므로앤디에게 적당한 장소일 것 같았다. 둘째로 이 호수는 내륙평원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서 내가 내륙 원주민의 역사를 계속 탐지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근거지 같았기 때문이다.

(계속)

한양대학교동문

성탄, 송년회의 초대

친애하는 동문여러분 또 연말을 을 맞아 바쁘신 생활중에나마 잠깐 시간을 내어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해 보았읍니다. 부디 부부동반 하시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 1981년12월18일(금)오후7시
장소 : 거구장(5 BETHRIDGE RD.
전화 : 742－1618
회비 : 부부당 $30 싱글 $15

한양대학교동문회

"내고향 통닭집"

내가 등진 저바다 건너
고국하늘 밑에 살고있는 부모형제를 그리는
향수…, 벗과 함께 쌓이고 쌓인 그 모두를
통털어 여기에 자리잡고 당신의 마음을 아는듯 기다리고 있는 전기구이
닭으로…, 아니면 고향의 내음이 담뿍풍기는 곰탕, 우동, 빈대떡, 만두 등등 조국의 얼로
집씹으며 마음 답답함을 달래보는 기회를 종종 만들어 보시지 않으시렵니까….

537－0432
주소 : 658½ BLOOR ST. W.
(블루어×매닝)

경동동창회파티

즐거운 성탄과 새해를 맞이 하고저 동창회 파티를 아래와 같이 갖고저 하오니 동문여러분 부부동반하여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 : 1981년12월19일(토)오후7시
장 소 : 한인회관(20 MOBILLE DR)
연락처 : 백운산(624－3849)
이춘수(274－6127)
※시간이 변경되었으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동동창회 동문회장
장진무

연합성탄축하 음악예배

장소 : 한인장로교회(1183 DAVENPORT RD)
일시 : 1981년12월13(일) 저녁7시30분
설교 : 홍신웅 목사
음악 : 한인연합합창단 (박재훈 박사지휘)

주최 : 오순절장로교회
후원 : 한인교역자연합회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韓日經協 조속妥結재확인

崔大使-日새外相 빠른時日內 頂上회담도

日側 엔借款 우선解決제시
外相會談먼저열어 관계改善

◇崔慶祿주일 대사가 4일하오 東京의 일본외무성에서 사꾸라우찌 (櫻內) 일본외상과 회담하고있다. 【東京 4日AP電送=聯合】

【東京4日=宋孝彬특파원】崔慶祿駐日대사는 4일하오 3시50분부터 20분동안 외무성에서 사꾸라우찌 (櫻內義雄) 신임외상과 회담, 교착상태에 빠진 韓日 경제협력문제를 조속히 타결하고 외상회담을 거쳐 韓日정상회담을 빠른 시일내에 개최하여 韓日정상회담을 기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崔대사와 사꾸라우찌 외상간의 회담은 崔대사가 이날 사꾸라우찌외상을 예방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나 특히 내각이 개편된후 처음가진 韓日간의 정부레벨의 접촉이라는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며 일본측이 韓日관계개선을위해 의욕을 보인것으로 주목된다.

사꾸라우찌 신임외상은 이날 회담에서 교착상태에 빠진 한일관계를 타결하기위해 ①스즈끼수상이 1일 기자회견에서 밝힌것처럼 81년도의 엔차관문제를 조속히 처리하고 ②60억달러의 對韓經協은 82년도의 경제협력문제로서 금년도의 엔차관부터 우선 해결한후 협의를 계속하되 ③조속한 시일내에 양국외상회담을 거쳐 정상회담을 갖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것으로 알려졌다.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이날 사꾸라우찌 외상이 한일경제협력문제에대해 기본적인 일본의 입장을 제시했다고 말하고 경제협력문제가 기본적인 원칙에서 타결이 될경우 빠르면 연내 또는 내년초에 외상회담을 거쳐 한일정상회담을 열수있게될것이라고 전망했다.

民正、國會法개정 代案마련

내년3月이전에 臨時國會 소집

民正黨은 이번 정기국회중에 國會法을 개정하지 않는다는 당초의 방침을 바꾸어 이번 정기국회의 운영상황을 전면 검토하여 黨의 개정 代案을 마련, 來週中 국회運營委산하 國會法 개정심의小委에 제시할 방침이다.

李鍾贊 民正黨총무는 4일 국회운영의 제도적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도록 운영위 전문위원에게 지시했다고 말하고 내주중에 종합적인 代案을 발표하겠으며 제도적개선책으로 國會豫決委의 常設化등이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법개정小委는 그동안 民韓黨과 국민당이 제출한 代案을 중심으로 심의를 해왔는데 民正黨은 정기국회가 지난뒤라야 法개정여부를 알수있다는 이유로 改正代案을 제출하지 않았다.

李총무는 또 정부가 제출한 1백20여개法案중 50여개는 이번 회기안에 처리할수 없기때문에 내년 3월이내에 임시국회를 소집하여 처리하겠다고 말하고 이같은 방침을 이미 행정부측에 통고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法案은 모두 1백20여건으로 그중 38건이 본회의에서, 22건이 常委에서 통과되었는데 오는 12일까지 나머지 80여件을 처리하기가 시간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民正黨과 사전 협의를 거치지않았거나 최근 막바지 국회에서 무더기로 제출된 案件은 다음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것이라고 한관계자가 밝혔다.

李총무는『과거처럼 정부法案이면 무조건 통과시키거나 한꺼번에 무더기로 통과시키는식의 국회운영은 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羅碩昊정책위 의장은 保社部등에서 제출한 醫藥관계법등은 이를둘러싸고 각단체의 이익이 相衝되는것들이 있어 이런法案도 조정이 필요하기때문에 이번국회에서 처리하기는 불가능하며 勞動部에서 제출한 5개法案은 黨과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기때문에 다음會期로 미룰것이라고 밝혔다.

새마을 有功企業人 全대통령 招致만찬

全斗煥 대통령은 4일하오 영부인 李順子 여사와 함께 청와대에서 崔元碩 東亞그룹 회장등 새마을 운동 有功기업인들을 위해 만찬을 베풀고 이들을 치하했다.

日民社黨委長접견

全斗煥 대통령은 4일하오 靑瓦臺에서 일본民社黨의 사사끼·료오사꾸 (佐佐木良作) 위원장과 요시다·유끼히사 (吉田之久) 衆議員등 일행 10명을 접견하고 환담을 나눴다.〈사진〉

이자리에는 韓日議員 연맹의 李載灐회장과 金潤煥간사장, 李泰九 民韓黨부총재가 배석했다.

地方交付稅 2%늘어

8·3조치法廢止따라 內國稅의13·27%로 결정

정부는 8·3措置 폐지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따라 地方財政의 안정적운영을위해 8·3조치에 의해 묶여온 지방交付稅率을조정, 지방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토록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4일 국무회의에서 지방交付稅法 개정안을 의결, 지방교부세의 財源을 內國稅總額의 13·27%로 정하고 이중 보통교부세는 교부세총액의 11분의10으로하는 한편 특별교부세는 11분의1로 정했다.

현행 지방교부세율은 內國稅총액의 17·6%(보통교부세16%, 특별교부세1·6%)로 돼있으나 8·3조치에 따라 11%내외로 묶여있었다.

이번 지방교부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교부세율은 현행보다 사실상 약2%늘어나게되는 셈이다.

정부는 이 지방交付稅法 개정에관한제안이유에서『지방재정의 현실적인 여건을감안, 지방교부율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 法定化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안정적, 계획적인운영을 보장하려는것』이라고설명했다.

이와함께 국무회의는 이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도 고쳐 보통교부금의 재정규모에 當該연도의 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고 보통교부금중 의무교육기관의 교원봉급에 포함시켜오던 수당을 봉급액과 합산토록 했다.

지방교부세율문제는 그동안 野黨측에서 주장, 與野간의 쟁점이 돼왔다.

8·3措置法 폐지
閣議의결 施行 9년만에

국무회의는 4일 72년8월 3일부터 시행된「경제안정과 성장에관한 대통령긴급명령」제15호(8·3措置)를 국회의 解除건의에따라 이를폐지하기위해 경제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폐지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법안에 의하면 기간산업등에 필요한 자금을지원키위해 조성된 산업합리화자금의 관리운영에 대해서는 大統領令으로 정하도록하고 합리화기준에따라 대상法人이 合倂할 경우는 租稅特例의 적용을 종전규정에 따르도록했다.

발트하임 유엔 事務總長
3期 連任候補 사퇴성명

◇쿠르트·발트하임 유엔事務총장이 3일 3차연임출마포기를 선언한후 유엔본부내의 사무실로 향하고있다. 【유엔本部 3日AP電送=聯合】

【유엔본부3日UPI=聯合】쿠르트·발트하임 유엔사무총장은 3일 안보리의 차기 유엔사무총장직 선출을 수월하게 하기위해 차기투표에서 후보를 사퇴했다고 안보리가 공식발표했다.

올라라·오투누 안보리의장은 발트하임총장과 또다른경쟁자 살림·아메드·살림 탄자니아 외상에게『차기 유엔사무총장직선출로 진통을 겪고 있는 안보리가 다른 후보들을 고려해볼수있도록 사퇴해줄것을 요청, 발트하임총장이 이에 응했다』고 말하고『살림 외상도 곧 후보를 사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살림 辭退거부

【유엔본부4日AP=聯合】살림·아메드·살림 탄자니아 외상은 유엔 안보리의장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차기 유엔사무총장후보로서 사퇴하지 않기로 결정, 계속 후보로 남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 無許건물 15萬4千棟

陽性化앞서 建設委 보고 25坪미만이 95·1%

서울시내의 無許可 건물은 총15만4천47棟으로 밝혀졌다.

서울市가 4일 국회建設委의「特定건축물정리에따른 특별조치법」심사小委에 보고한「무허가건물陽性化에 따른현황」에 의하면 무허가건물은 國有地에2만4천90棟, 市有地에 4만7천4백99棟, 他人私有地에 1만7천82棟, 私有地에 7만1천6백76棟이 있으며 건물규모별로는 10坪이하가 41·7%인 6만4천2백7棟, 10~20坪이 7만1천81棟(46·1%), 21~25坪 1만1천2백37棟(7·3%), 25평이상이 7천5백20棟(4·9%)으로 나타났다.

또 長期未竣工건축물은 住居用이 2만1천3백92棟, 非住居用이 1천6백93棟등 모두 2만3천85棟으로 주거용의 경우 25坪이하는 1만1천6백74棟, 25~50坪이 8천5백7棟, 50~70坪이 9백35棟, 70坪이상이 2백76棟이며 非주거용은 1백坪이하가 1천2백29棟, 1백坪이상이 4백64棟으로 밝혀졌다.

무허가 건물의 지역별 분포는 일반지역이 6만6천5백12棟, 재개발지역이 8만7천5백35棟이며 鐵路邊 1천2백76棟, 公園(高地帶)3만8천6백19棟, 河川 1만2천3백63棟, 구획정리지역 3천3백76棟, 기타지역 9만8천4백13棟으로 나타났다.

또 장기 未준공건물 2만3천85棟중 재개발지역에 9백57棟, 도시계획 저촉지역에 16棟, 관광도로변에 18棟, 기타지역에 2만2천94棟이 들어있다.

서울市는 이보고에서 무허가건물陽性化의 기본방향으로 재개발지역및 철거대상지역을 재조정, 지금까지의 재개발계획 2백27개지역 16만5천1백77棟(무허가8만7천5백35棟포함)중 69개지역 9만4천6백38棟(무허가 3만9천7백71棟포함)을 재개발지역에서 해제하고 1백58개지역 8만3천2백86棟(무허가 5만6천70棟포함)을 존속시키는한편 무허가건물 1만6천9백93棟을 포함한 1만1천8백99棟을 철거정비키로 했다.

농민長期債 利子率내려

정부와 民正黨은 농민의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내년에 농민의 長期債이자율을 현행 5·5%에서 3·5%로 인하토록 조치했다.

이같은 利子輕減혜택은 營農가 78만호에 거의 대부분이 돌아가 연간총3백48억원의 이자부담 경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있다.

이와관련, 2일 확정된 82년도 예산안은 2%의 水利시설 長期債의 利差를 國庫에서 부담토록 보조금으로 20억원을 두고있는데 이에따라 水利조합비는 금년 수리시설이 준공된 지구의 경우 단보당 평균 양곡40·3kg에서 27·7kg으로 낮아지게됐다.

社會漫評

나도 좀 올라가 보자…

地平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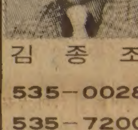
평화를 지키는데 돈이 많이 든다. 많이 든다기보다는 점점 더 들어간다는 말이 옳다. 소위「공포의 균형」이요 무장평화시대의 수학이다. 예를 들어 미국해군이 10년전에 값싼 전투기로 구상한 F18 호네트기는 애초에 대당 5백만달러(35억원)로 예상됐었다. 그러나 국방성의 요구로 정교한 전자장비와 무기를 덧붙이고 보니 3천만달러(2백10억원)로 껑충 뛰었다. ▼전투기조종사가 적기를 만나 기관총을 쏘면 3백50달러(24만5천원)를 버리게된다. 그러나 피닉스 공대공 미사일 한방을 쏘면 75만달러(5억2천5백만원)가 날아간다. 또한 미국의 최신형 XM1탱크는 한대에 2백70만달러(18억9천만원)나 된다. 이것은 2차대전말 탱크값의 10배나되는 엄청난 가격이다. 그만큼 국방예산은 쪼들리게 마련이다. ▼50년대에는 미국방성은 한해에 3천대의 전투기를 살수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2백50대를 살수있을 뿐이다. 무기값이 이대로 올라간다면 2054년에는 겨우 한대를 살수있을것이라고 한다. 덤달아서 세계의 군사비는 뛰고만있다. 지난10월에 나온 유엔의 한보고서는 80년에 전세계의 군사비는 5천억달러(3백50조원)가 됐다고 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80년에 세계는 총생산의 6%를 군사비로 썼다는 계산이 된다. 이것은 전세계 개발도상국의 총생산과 맞먹는 액수라고 한다. 한편 군사관계로 일하고 있는 인구수는 5천만명, 세계과학기술자의 20%인 50만명이 군사기술연구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은 전세계 연구비의 4분의1꼴인 3백50억달러(24조5천억원)를 군사기술 연구에 썼다. ▼미국의 한 민간단체인 군축협회는 세계의 군사비가 5천5백억달러(3백85조원)라고 보고 있다. 이중에서 1천억달러(70조원)가 핵무기에 쓰이고 있다. 인도수상 간디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하나를 만들 돈의 씀새를 이렇게 계산하고 있다. 나무 2억그루를 심고, 농토 1백만정보에 물을 대고, 굶주린 아이들 3천만명을 먹이고, 1백만톤의 비료를 살수 있다는 것이다. ▼군비부담이 늘어나고 공포의 균형에 대한 공포를 풀어보려는 군축회담이 지난달말부터 제네바에서 재개됐다. 미국과 소련의 중거리 핵무기를 줄여보자는 홍정이다. 미국의「0의 선택」과 소련의 중거리 미사일배치 모라토리움안이 맞서고, 양쪽의 핵군사력 균형상태에 대해서도 팽팽히 맞선채 회담은 시작됐다. 이미 배치된 소련의 SS20 2백50기와, 앞으로 배치될 미국의 퍼싱II및 크루즈의 기나긴「숫자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한국일보

생명의 말씀
CITY-TV : 체 널 79
케이블 7
일요일 8 : 30~9AM
MTV : 체 널 47
케이블 4
목요일 12 : 30~1PM

구독신청은
(416)
533 · 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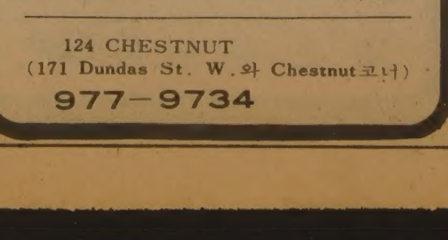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 동 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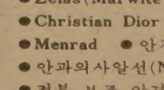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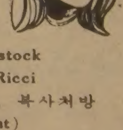
서 울
여 행 사
IATA
수속에서 출발
관광, 도착까지
●국내·국제
항공표 일체
●이민·방문
초청 안내
631A BLOOR
ST. W.
535-6004,
8801
293-9970,
5823
최 동 주

MARVIN STARR
취급종류
●PONTIAC : ACADIAN
PHOENIX, FIREBIRD,
LEMANS,
GRAND PRIX
PARISIENNE
●BUICK : SKYLARK
CENTURY ROYAL
RIVIERA
●각종VAN트럭
●데모카
●USED CAR

신 성 우

스카보로의 유일한 경험많은 한국세일즈맨
최고의 아프터 써비스.
3132 EGLINTON AVE. E.
(마캄×에그린톤)
전화 : 264-2311 (PAUL SHIN)

意安飯店
의 안 반 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4시까지 영업
일류 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항상 신선한 럽스타, 게, 굴,
해삼, 전복등을 준비했읍니다.
영업시간 :
월~금 : 4 PM~4 AM
토~일 : 12PM

124 CHESTNUT
(171 Dundas St. W.와 Chestnut코너)
977-9734

블루어안경


●Zeiss(Marwite)　●Rodenstock
●Christian Dior　●Nina Ricci
●Menrad　●안경제조, 수리, 복사처방
●안과의사알선(No Appointment)
●정부 보조 안경지정영업소
●Blue Cross, Metropolitan Life Vision
Care지정 안경점
●Stock렌즈는 당일 서비스 합니다.
※주2회 안과의사가 직접 내방하여 검진하오니 이 시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 오후1시부터~4시30분까지
토요일 : 오후1시부터~4시30분까지
영업시간 : 월~목·9 : 30AM~7AM
금·9 : 30AM~8PM
토·9 : 30AM~6PM
주 소 : 629 BLOOR ST. W. TOR.
전 화 : 531-2236(B), 282-2369(R)

HWANG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
햄버거 샵
주매상 만3천달러. 물개지 10만달러.
가격 : 38만5천
도넛 샵
•일요일 닫고 하루12시간 영업 운영간단
년수입 : 4만5천. 아스킹 11만 달러
•주매상 : 4천5백. 주매상 : 5천5백
주매상 : 6천5백. 주매상 : 7천달러 되는 도넛츠
스토아 여럿있음.
버라이어티 스토아
•주매상 : 4천2백달러. 주매상 : 5천달러(일요일 닫음)
주매상 : 5천5백달러. 주매상 : 6천달러.
주매상 7천달러
버라이어티 스토아및 가옥
•주매상 4천달러. 코너건물. 2 베드룸
아스킹 12만8천달러
•주매상 6천달러. 코너건물 3 베드룸
아스킹 22만달러
쇼핑 몰
스모크, 키프트 샵. 새로 OPEN 됨. 아스킹 8만달러
기프트 크레프트, 허비 샵. 년매상 17만달러.
아스킹 8만달러
TOM HWANG REAL ESTATE LTD.
REALTOR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ONT.
TEL. (416) 449-8644, 8645(B), 286-1548(R) M3B 1Z3

蘇, 極東서도 和平공세

蘇의 美·加연구소장 아사히會見

戰域核배치 협상용의

美서 主導, 中共참여촉구

【東京4日AP聯=聯】소련은 극동지역의 戰域核배치문제에관해 美·中共과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소련의 美·蘇관계권위자가 밝혔다。소련의 미국과 캐나다문제 연구소장인 기오르기·아르바토프는 4일 아사히 신문과의 회견에서 극동에서의 戰域核을 제한하기위한 협상에 중공이 참여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소련공산당 중앙위원이며 브레즈네프 서기장의 외교고문으로 믿어지고 있는 아르바토프는 극동지역에서 군사적인 신뢰의 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한 지난2월의 브레즈네프 연설에언급, 협상을시작하려는 주도권이 미국에서부터 나와야 한다고 시사했다고 아사히 신문은 보도했다。

아르바토프는 데탕트나 군비축소에관한 모든 회담이 다루는 문제가 지구전체의문제인 핵전쟁에 관한 것이기때문에 중공은 마땅히 모든 회담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르바토프는 또 만일 일본이 非核3원칙을 진정으로 고수한다면 소련은 핵공격을 하지않을것을 일본측에 분명히 보장한다고 말했다。

◇징역형 선고받은 터키前首相 정치활동 금지법 위반혐의로 軍裁에서 4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은 불렌트·에체비트(56)前 터키首相(中)이 3일 지지자들에 둘러싸인채 교도소로 향하고있다。【앙카라 3日AP電送=聯】

暗殺團 잠입說에 補佐官 警護명령

【워싱턴3日聯=聯】레이건 대통령은 미국의 고위관리의 생명을 노린 리비아의 암살단이 미국에 잠입했다는 보고에 뒤이어 3일 자신의 수석보좌관 3명에 대한 비밀경호조치를 명령했다。

레이건 대통령의 명령으로 비밀경호를 받게될 보좌관은 미즈·베이커, 디버보좌관등이라고 관리들은 말했다。

波勞組, 總罷業 위협

國會서 緊急措置法 승인하면

바웬사, 支部長連席會議서

【라돔(폴란드)3日UPI=聯】폴란드 자유노조지도자 바웬사는 3일 국회가 파업을 규제하려는 정부의 압력에 굴복, 파업규제비상조치법을 통과시킬 경우 자유노조는 전국적 총파업을 단행할것이라고 선언했다。

바웬사는 이날 경찰이 바르샤바에서 파업중인 소방사관생도들을 무력으로 강제해산시킨 사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바르샤바남부의 공업도시 라돔에서 개최된 자유노조지도부와 전국자유노조 38개지부장연석회의에서 연설하면서 만약 국회가 정부당국의 요구대로 그같은 파업규제비상조치법을 승인한다면 우리로서는 다른 어떤 대안도 없기때문에 전국적 총파업을 단행할것이라고 경고했다。

蘇·中共관계 정상화 촉구

폴리안스키大使 "세계平和兩國에 달렸다"

【東京3日UPI=聯】주일소련대사 드미트리·폴리안스키는 3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이 소·중공관계에 달려있다고 지적, 양국이 20여년간에 걸친 불화를 청산하고 관계정상화를 이룩할것을 촉구했다。

폴리안스키대사는 이날 東京에서 개막된 국제「평화 안정 생존」에 관한 심포지엄에서 연설을 통해 소련은 항상 중공과의 관계정상화를 촉구해왔다。

시스케이國 獨立

아프리카 59번째

【비쇼(시스케이)4日AP·聯】시스케이는 3일 네번째로 南아프리카 공화국으로부터 독립함으로써 아프리카에서 59번째의 독립국이 됐다。

전국의 교회당종소리와 1백발의 축포가 울려퍼지는가운데 南아프리카 공화국기가 내려지고 흰색과 푸른색의 시스케이국기를 게양했으며 3만여군중이 느타바칸도다에 있는 국가기념탑앞에 모여 독립을 축하하는 행렬을 밝

「核戰과 健康」강좌

하버드大 新設할듯

【캠브리지(美매사추세츠州)4日AP=聯】美하버드대학은 핵전쟁으로인한 대량살상에 대비, 「핵전과 건강」이라는 새로운강좌를 신설할 예정인것으로 4일 알려졌다。

하버드의대내 핵무기경쟁 반대운동고조와함께 제기된 이 강좌신설문제는 오는7일 하버드大강좌위원회에서 표결에 붙여지는데 강좌위원회의 승인이날경우 이 강좌는 다음학기부터 정식신설된다。

이 강좌는 방사능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핵전으로인한 건강및 위생시설의 파괴후 야기될 장티푸스및 기타 질병만연등 핵전후 생존의사들이 직면할 의학문제들에중점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

핵전반대단체회원으로 이 강좌신설을 제외한 4명의 하버드의대교수단중 한사람인 제임즈·뮬러조교수는 이 강좌신설은 핵전전염병에 대한 위기의식의 고조를 입증하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메아리

사할린의 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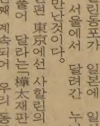
1백59만명이라는 많은 우리동포가 지금 98개국에 진출해서 살고있다。외무부가 공식으로 발표한 해외국민현황이다。여기엔 공산권은 제외되었다。

외무부의 잠정추계론 중공에 2백20만, 소련에 40만명의 우리동포들이 있는것으로 알려졌다。소련거주 40만명가운데엔 물론 사할린동포도 포함되었을 것이다。

소련령의 이凍土엔 우리 민족의 비극이「사할린의 恨」이되어 고드름처럼 차갑게 맺혔다。일본의 패전직후 그곳엔 약4만3천명의 한국인이 自意와 무관하게 잔류했다。일본의 르포작가 미다(三田英彬)의 표현을 빌면 이들은 日帝에의해 마치「노예사냥」같은 숫법으로 강제징용을 당해 끌려갔던 사람들이다。

30여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1세들의 숫자는 줄어든것같다。79년 소련 국세조사에 의하면 3만4천여명으로 나타났다。2·3세까지 합하면 6만~7만명으로 알려지지만 확실치 않다。이가운데 약5%가량인 2천~3천여명이 조국을 그리며 발버둥치고있는「무국적」한국인이다。막연히 귀국의날을 기다리며 뼈저린 望鄕36년의 세월을 헛되이 살아왔다。

요며칠사이 일본 東京과 大阪에선 사할린을향한 피맺힌「절규」와「통곡」이 잇달아 터져나와 우리의 눈시울을 적시며 목메게했다。大阪공항 로비에서 38년만에 혈육의 재회가 이루어졌다。비극의 연륜을 증언하듯 백발에 주름진 남매가 부둥켜안고 그동안 맺혔던 응어리를 조금이나마 풀었다。



우리정부의 노력과 일본·소련당국의 배려로 한 사할린동포가 일본에 일시입국, 서울에서 달려간 누님들과 만난것이다。

한편 東京에선 사할린의 恨을 풀어 달라는「樺太재판」이 6년째 계속되어 우리 동포의 피를토하는 증언이 공판정을 숙연케 만들었다。두증인은 증언대를두드리며「내남편과 동생을 돌려보내라」고 호소했다。이 재판의 피고는 바로 일본정부다。

사할린동포가 그리운 조국에 올수있게 하는 해결의 첫 열쇠는 일본이 쥐고 있다。일본정부는 필리핀 정글에 생존해 있던 일인 패잔병 1명을 찾기위해 엄청난 노력과 비용을 들였다。그런데「사할린의 목소리」엔 왜 귀를 기울이지 않는가…。

B1 爆擊機 1백대 美上院서 生産승인

【워싱턴3日聯=聯】美상원은 3일밤 B1폭격기 1백대를 생산하려는 레이건대통령의 제안을 승인했다。

상원은 이날 B1폭격기 생산비의 24억달러를 삭감한 일단의 민주당의원들의 수정안을 68대28로 부결시킴으로써 레이건의 정책을 지지했는데 상원에 앞서 하원도 레이건의 B1폭격기및 MX미사일 배치계획을 승인한바 있다。

첫 科學전문週刊紙창간

타블로이드版 20面…「週刊科學」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과학기술 정보만을 전문으로 다룬 週刊紙가 나왔다。「1백만 과학 기술인의 종합 정보지」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건「週刊科學」(대표 鄭達善)이 바로 우리나라 유일의 과학전문지。창간에 참여한 이들은 전직 언론인 출신들이다。

"核先制공격 안한다"

나토解體땐 바르샤바機構도 해체

바르샤바國 外相회담 성명

【부쿠레슈티(루마니아)3日AP=聯】소련과 바르샤바조약기구동맹국들은 2일 바르샤바조약기구는 핵선제공격을 하지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바르샤바조약기구외상들은 이틀간의 회담을 마치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그같이 다짐하고 이어 만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가 해체된다면 바르샤바조약기구도 동시에 해체하겠다고 제의했다。

合同閣僚회의개최

나토 外相·國防相 7일부터 브뤼셀서

【브뤼셀3日聯=聯】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半年例외상·국방상합동각료회의가 제네바 미·소군축협상과 때맞춰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브뤼셀에서 개막, 미·서구국들간의 보다 밀접한 결속방안을 논의한다。

美蘇 軍縮협상 오늘再開

美軍縮局長 "유럽反核데모 妥當"

【제네바3日AP=聯】제네바 군축협상을 진행중인 미국과 소련대표단은 이번협상의 긍정적결과를 염원하는『희망의 메시지들』이 전세계로부터 그들에게 전달된가운데 4일 유럽배치 核무기감축에관한 협상을 재개했다。

소련측대변인 블라디미르·에브도쿠친은 전세계로부터 전달된 이들 전문과 메시지들이 이번 협상의 긍정적결과에 대한 염원을담고 있다고전하고 소련대표 유리·크비친스키도 상당수의 메시지를 받았으나 이에 일일이 응답하기가 힘들 것이라고덧붙였다。

"韓半島평화제도화 어렵다"

잭슨議員, 국민스스로에 달려

【워싱턴3日=曺淳煥특파원】헨리·잭슨미상원의원은『한반도 평화제도화는 어렵다』고 잘라말하고『한반도 평화의 요체는 그제도화에 있는것이아니라 국민들에 달려있다』고 4일 워싱턴 해외특파원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잭슨의원은 소련의 한반도 기본전략과 88년 서울올림픽 참가문제에 대해 질문받고『그렇게 멀리 앞질러 내다보고 싶지않다』고 전제,『그 지역(동남아시아)에 대한 소련측정책에서 88년서울올림픽 참가는 현재소련이 관심을 두는 주요문제가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의 한, 소련문제전문가는 소련의 88년 서울올림픽 참가 가능성은 반반이나 소련이 불참하더라도 폴랜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알바니아등 동구권 국가들은 특별한 일이 없는한 서울올림픽에 참가할것이라고 말했다。

◇미지근한 撤去대책에 항의하는 이스라엘 定着民 내년4월이면 점령지를 이집트에 돌려주어야되는 시나이반도의 이스라엘정착민들이 철거보상대책이 지지부진한데 항의, 마을입구의 길을 봉쇄한뒤 지키고있다。감시탑위에는 메나헴·배긴이스라엘수상의 허수아비가 세워져있다。【마니트(시나이사막점령지)AP電送=聯】

金日成偶像化 더 심해져

"하늘에서 내려온 偉人"云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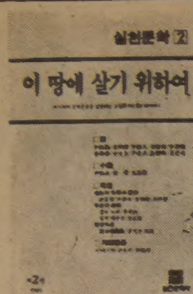
방콕紙서 비꼬아

【방콕4日=聯】방콕의 英字日刊紙 방콕·포스트는 최근 한 칼럼을 통해 北傀의 광적인 金日成우상화가 점점더 심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방콕·포스트는 지난11월21일자 1면에 게재된 칼럼·나인쇄에서 北傀의 신문및 통신에 빼놓지않고「偉大한 金日成」云云의 제목을 다는것이 北傀가 金日成우상화에 안간힘을 쓰고있는 전형적 예라고 지적했다。이 신문은 또 홍콩에서 발간되는 파·이스턴·이코노믹·라뷰紙를 인용, 北傀중앙통신은 金日成을두고『만인위에 당당히 군림하는 사람』『인류의 존경을 한몸에받는 사람』『인류에게 행운의 빛을보내는 사람』『하늘에서 내려온 위인』『千里眼의 지혜를 가진英雄』『난폭자를 무릎밑에 굴복시키며 永生의 빛을 온누리에 비쳐주는 사람』등 金日成우상화에만 급급한 단어들을 모두 나열하고있다고 덧붙였다。

朝鮮朝文物찬양한「漢陽歌」異本발굴게재

「실천문학」제2권「이땅에 살기위하여」펴내



◇이번에나온「실천문학」제2권。

○…「새시대의 문학운동 실천」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지난80년4월창간된不定期간행물(Mook)「실천문학」의 제2권이 나왔다。「이땅에 살기 위하여」라는 題名이 붙은 실천문학의제2권에는 朝鮮朝때 漢陽의문물을 찬미했던「漢陽歌」의 異本이 발굴돼 실려있어주목을 끈다。

「漢陽歌」는 1844년(憲宗10년)에 쓰여진 漢山居士의 작품을 正本으로하고있다。

이번에 새로발견된 嶺南本은 4천4백33句에달하는 분량으로, 1천6백22句의 漢山居士本을 압도하고 있다。소장자 吉三植씨에의하면 이嶺南本은 경북善山지방의 儒生吉모씨가 당시 떠돌던 그지방의 別本「漢陽歌」를 筆寫해 家傳한것으로 필사본마지막에 한일합방전후의 내용이 실려있는것으로 미루어 1910~20년대 무렵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嶺南本의 특징은 漢陽의地勢·궁장·누각등의 구조물을 소개한 다음 왕실세계표에의한 역대28王의 재위연간을각論하여 年代記的인 서술을시도했으며 嶺南學派의 巨頭鶴峰 金誠一을 지지하면서東學혁명을 부정적으로 기술한점이다。

「실천문학」에는 이밖에 특집으로 오늘의 문학과 역사를 주제로한 洪思重·朴泰洵 양씨의 논문과 무크의 특성을 살린 李東洵·金正煥두 시인의 長詩가 실려있다。특히 金正煥씨의「황색예수전」은 예수의 고난과 영광의 생애를 오늘에 다시 조명해 본 장편연작시다。【실천문학사刊·3천2백원】

出版화제

弟子에 보낸 글모아

「간디의 명상 6백88일」

「날마다 한 생각」이「간디의 명상 6백88일」이란 부제를 달아 출간돼 나왔다。함석헌·진영상두분이 공역한 이책은 간디가 아들같이 사랑하는 제자 힘고라니에게 그날 그날 한토막씩 적어보낸 글을 엮은것。

힘고라니가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슬픔에 젖어있을때, 자신은 계속 박해를 받으면서 인도의 운명을 한몸에 지고 고투하는 형편이었는데, 한 영혼을 위로하고 눈을 뜨게하기 위해서 그처럼 가슴에서 우러나는 속말을 써보낸 6백88편의 단문이야말로『진주알 같은 말들』이라고 安炳茂박사는 평하고있다。

미사儀式에 맞춰쓴 默想錄

吳蕙齡著「사랑하는 나의님…」

◇吳蕙齡씨

○…癌투병기「일어나 비추어라」의 작가이자 여류작가인 吳蕙齡씨(40)가 이번에는 신앙고백기「사랑하는 나의님 보셨나요」(文新社刊·2천7백원)를 내놓아 화제。

「사랑하는 나의님 보셨나요」는 吳씨가 천주교의 聖祭형식을 따라서 쓴 默想錄으로 여기서「나의님」은 하느님 야훼를 가리키는 말。지난9월 중순부터 10월말까지 충북陰城邑 陰城성당에서 기도하면서 썼다。

그는 78년3월 胃癌선고를 받고 1년간에 걸친 투병끝에 이를 극복, 지난해 투병기「일어나 비추어라」를 내놓아 베스트셀러가 되기도했었다。

金壽煥추기경은 吳씨의 默想錄서문에서『사랑하는…』을 대하면서 문득 [illegible]티누스의 글귀를 연상한다』고 말하고『오혜령씨(실비아)는「일어나비추어라」에서 하느님으로부터 치유의 은총을 입었으며 이번엔 그분과의 보다깊은 만남을 고백하고있다』고 평했다。

"소냐는良妻…久遠의女人"

「소냐-톨스토이와의 한생애」서 주장

○…소크라테스의부인 잰티피(Xanthippe)와 더불어 세계2대惡妻로 꼽히는톨스토이의 부인소냐(Sonya)가 사실은 惡妻가 아니라 톨스토이를 진실로 사랑한 구원의 여인이었으며 오히려톨스토이가 정신질환적인 환자였다는 상반된 견해가 나와 화제를 모으고있다。

이같은 사실은 미국의 전기작가 앤·에드워즈(52)가 최근에 펴낸「소냐-톨스토이와의 한생애」에서 밝혀졌는데 우리나라에선 日月書閣이 朴智東譯으로 이를 題名 그대로 내놓아 국내독서계에서도 역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지금까지 톨스토이에관한 작품은 수없이 많이 나왔으나 惡妻의 표본으로 꼽히는 소냐를 독립된 하나의 전기로 내놓은것은 앤·에드워즈가 처음이다。

소냐는 侍醫베르스 집안의 둘째딸로 레오·톨스토이와결혼한것은 겨우18세때。이때톨스토이는 32세였다。이들의결혼생활은 48년간 지속됐고그동안 13명의 자녀를 낳았으며 그들중 6명은 돌의 손으로 묻었다。

소냐가 惡妻로 평판되는것은 만년의 톨스토이가 금욕주의, 인도주의, 사유재산부정이란 그의 신념대로 거의 전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마침내 그의 領地 야스나야·폴리나마저 떠나려할때거의 미치다시피 그를 붙잡아 앉혔고 자살소동까지 빚었다는데있다。또한 나중에는 남편을 허름한 정거장에서죽게한 장본인이라는데있다。

이에대해 앤·에드워즈는 반론을 폈다。『소냐는 한남자의 아내일뿐만아니라 소망과 욕구를 가진 하나의 인간이라는 사실을 남편으로부터 승인받고자 힘겨운 싸움을 벌인다。톨스토이에의 끝없는 사랑, 자녀들과의 애정을 둘러싼 갈등, 그리고 끝내는 남편이 집을 뛰쳐나가 조그만 시골역에서 숨을 거두는 비극을 맞는다。도대체 소냐가 그 진실을 밝히지 않고있는데 어떻게 낯선사람들이 그 진실을 알수가 있겠는가』

◇日月書閣에서 나온「소냐」의 完譯本。

海外토픽

두번째試驗管아기

★英브라운女人 내년7월경

세계최초의 시험관아기를 분만한바있는 영국의 레슬리·브라운여인(34)이 내년7월께 또다른 시험관아기를 분만할 예정으로 있다고 영국의 국내통신인 프레스·어소시에이션이 3일 보도했다。

이통신은 영국서부 브리스톨에 남편과함께살고있는 브라운여인이 이번에는 2개의 난자를 이식받았기때문에 쌍동이를 분만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는데 브라운여인이 이번분만에도 성공할경우 시험관아기를 두차례 낳는 세계최초의 여인이 될것이다。

브라운 여인은 지난78년7월 루이즈·브라운으로 명명된 세계최초의 시험관 아기를 분만했는데 루이즈·브라운양은 현재 정상분만아와 똑같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런던=AP】

癌治療에 현상금

★10年内성공때 百만弗줘

미국 옥시덴탈 석유회사회장인 올해83세의 아먼드·해머씨는 과거 소아마비예방백신을 발견한것처럼 어느과학자라도 암치료법을 개발해낸다면 그에게 1백만달러(약7억원)를 상금으로 주겠다고 제의。

해머씨는 자신의 이름을따 설립된 아먼드·해머재단이 한 위원회를 구성해 앞으로 10년안에 암치료법을 찾아내는 과학자들에게 모두 2백만달러의 상금을 줄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우리가 믿고있는 것 보다는 일부 암의 치료법 개발을 위한 과학적 돌파구가 훨씬 가까이 와 있다고 주장。

그는 자신의 이같은 제의가 암치료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상금중 1백만달러는 소아마비예방백신같은 암치료법을 개발한 과학자에게주고 나머지 1백만달러는 앞으로 10년동안 매해 10만달러씩 암치료개발에 획기적 진전을 보인것으로 평가된 과학자들에게 제공하겠다고 설명。【워싱턴=UPI】

◇플래스틱製 부리 부리를 부러뜨린 日本 고오베市立동물원의 황새한마리가 사육사들이 만들어준 플래스틱제부리를 달고있다。이황새는 이대용부리로 큰불편없이 생활하고 있는것으로 전해졌다。【고오베3日AP電送=聯】

KAWAI 피아노

- KAWAI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큰 회사중의 하나입니다.
- KAWAI 피아노는 일본 정부에서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 KAWAI 피아노는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읍니다.
- HILLCREST MALL ☎ : 883-9407
- MARKHAM PLACE ☎ : 881-8211

대표 : 윤호섭
세일즈 매니저 : 알렌

MR. CHOIS RESTAURANT

주중 : 월~수 낮12시~밤12시
목, 금 : 12시~밤1시
토 : 4시반~11시

2432 Eglinton Ave. E. Scarborough
☎ : 759-8512
최 영 호

Grant Brow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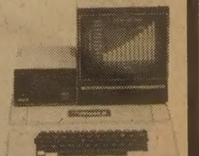
새차및 81년도 데모카
특별세일(매출)
GMAC 이자율 14.2%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이한구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Dukes Computer
SMALL BUSINESS SYSTEMS

— Computer에 관한 일반적인 전화문의 환영 —

- SPECIAL SALE
  자녀교육및 Business겸용
  Apple II Plus
- SOFTWARE SERVICE
  General Ledger
  Account Receivable
  Inventory Control
  Payroll및 Word Processing
- PERIPHERALS
  Printer, Games, Music, Graphics



826 FORESTWOOD DR., MISSISSAUGA, ONT. L5C 1G7
☎ : 275-0702 오 영 림

MACHO 버거 레스토랑

- 아담하고 조용한 장소로써 여러분을 모시겠읍니다.
- 연말연시 각종파티나 모임에 적합합니다.
- 술도판매합니다.
- 파티석 70석
- 파킹편리하고 음악및 시간은 예약에 따라 마음대로 조정가능하니 연락주십시요.

전화 : 498-1300
(MR. 리)

Steeles E / Victoria Park / Gordon Baker / Finch

BIG SEVEN무역선물센타
(구 아세아선물센타)

- 우황청심환, 녹용등
- 각종 귀국선물 염가봉사

678 BLOOR ST. W. (고려식품 옆)
☎ : 533-7966 김 영 철

오리엔탈·파레스

일요일 영업개시 오후 3 시부터
북경식 요리, 소고기 철판구이,
각종 홍콩식 요리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 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Downtown Office : (416) 537-6685
8AM~6 : 30P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삼미떡집2층)
★Willowdale Office : (416) 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거의 다가서임)
★평일 오후3시및 토요일에 오시는 분은 미리 전화주십시오.
★집전화 : (416) 222-9480

SUN－LIFE
생명보험. 각종보험
B) 922－3111
R) 439－8885
MRS. 김신명

1회용注射器사용 義務化

예방接種 副作用없게 對象 엄선

保社部, 간염예방위해 集團은 自動주사기

보사부는 예방접종 부작용 사고를 막기위해 내년부터 접종대상자를 엄선키로해 대상인원을 금년의 2천3백만명에서 1천5백만명으로 크게 줄이기로하고 집단접종에는 반드시 자동주사기만을 사용토록했다.

보사부는 4일 전국시도보사국장회의를 소집, 이같이 지시하고 집단접종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모든 예방접종에는 1회용 주사기 또는 한사람에 한주사바늘만을 사용하는 「1인1침원칙」을 철저히 지켜 부작용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했다.

보사부는 B형간염의 예방을위해 특히 1세미만의 신생아들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예방접종등 주사를놓을때 1회용주사기만을 사용토록 의무화시키고 단계적으로 1회용주사기사용을 확대시켜 나가기로했다.

보사부는 또 이날회의에서 내년도 영세민취로사업은 현재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내년1월중 조기착공이 가능하도록 취로대상자와 사업장우선순위등을 조속히 결정토록 지시하고 이밖에 현재 연간 출생아수의 82%이상을 29세미만여성층이 점하고있는 사실에비춰 20대가임(可姙) 여성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인구및 가족계획계몽사업을 벌이도록 지시했다.

관계銀行간부등 召喚

大邱시경 預金引出경위 集中수사

【大邱=聯】 속보=은행원의 고객예금 임의인출사건을 수사중인 大邱시경은 4일 C은행大邱西지점 당좌대리 金모(31) J은행大邱西지점장 金모(47), 차장 千모(43), 대리 金모(33), 南지점장 대리 李모(38), K은행 鳳德동지점 당좌대리 金모씨(31)등 관계은행간부 6명을 소환, 예금인출경위와 커미션 수수문제를 집중적으로 캐고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4월17일까지 자금난을 겪고있는 大邱市南區大明洞 우일주택사장 河仁守씨(39·부정수표단속법 위반혐의로 구속중)의 부탁을받고 자기은행 예금주들의 예금을 수시로 인출, 河씨에게 빌려주고 그때마다 5만~10만원씩의 커미션을 받아온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의 형사입건여부를 검찰에 품신했다.

주택업자인 河씨는 자금난을 겪게되자 자기회사회장인 崔모씨에게 부탁, 은행가에 칙구가 많은 崔모씨가 C은행 당좌대리 金모씨등 4개시중은행 간부들을 통해 河씨발행의 당좌수표를 끊어주고 현금을 빌어 부도를 막아왔다는것.

娟受양 感謝편지 全大統領에 보내

潤相군의 누나 娟受양(16·中央여고1년)은 4일 상오 全斗煥 대통령이 그동안 가족들에게 보여준 관심에감사하는 내용의 서한을 全대통령에게 보냈다.

娟受양은 이편지에서 『국민을 보살피는 대통령의 따사로운 관심으로 범인을잡게돼 감사합니다. 집에까지 찾아와 가족들을 위로해준 고마움을 평생 잊지않겠읍니다』고 썼다.

朱에 賭博혐의追加 함께도박2명 令狀

서울瀧浦경찰서는 4일 潤相군 유괴살해범 朱교사와함께 도박을해온 李泰鎬씨(28·코상업·서울江南區三成洞 코오롱아파트 13동107호)와 方厚植씨(26·H大학원생·江南區鶴洞952의2)등 2명을 상습도박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朱교사에 대해서도 상습도박혐의를 추가했다.

경찰에의하면 이들은 대학동창인 金철아씨(28·미국이주)와 함께 지난해 1월부터 12월사이에 매월3~4차례씩 포커판을 벌여왔다는것이다.

美博士코스중 歸國 외아들과 焚身자살

정신異常 치료받던 40代

3일 상오11시30분께 서울道峰區水踰洞419의29 黃淳悶씨(45)집 연탄창고에서 黃씨가 외아들 聖植군(1)과 함께 온몸에 석유를 뿌리고 분신자살했다.

黃씨의 어머니 金玉禮씨(74)에 의하면 이날 아들이 자신을 밖으로 내보내면서 『미국사람이 나를 잡으러온다』고 소리치며 대문을 잠가 밖에서 30분쯤 기다리던중 연탄창고에서 연기가 솟아 달려가 보니 黃씨가 손자와 함께 껴안은채 불에타 숨져 있었다는 것.

黃씨는 서울K고교를 졸업하고 서울J대학에 진학했다가 美國에 유학, 신시내티대학에서 경제학박사과정을 밟고 있었는데 정신이상증세를 보여 귀국, 요양중이었다.

징크스 낀 映畵출연하면 死亡

내탤리죽자 할리우드 迷信재등장

2週사이 홀든·앤더슨이어 세번째

海外演藝화제

19년전 마릴린·먼로가 많은 의문을남긴채 갑자기 사망한후 내탤리·우드가역시 많은 의문을 남긴채 익사하자 징크스가 있는 특정영화에 출연하면 반드시 죽고 만다는 할리우드의 해묵은 미신이 되살아나고있다.

특히 미신을 믿는 할리우드의 많은사람들은 내탤리의 익사가 윌리엄·홀든이 죽고 1주일후 재크·앨버트슨이 암으로 사망한뒤 2주남짓한 사이에 죽은 유명인중의 세번째라는데 의미를 부여하고있다. 따라서 근거는 없지만 징크스가있는 작품이 완성되고나면 그에 종사했던 출연진과 스태프들이 잇달아 비명에 간다는 믿음이 두터워져 가고 있다.

내탤리의 경우 비극적인 죽음을 예고한 작품은 「이유없는 반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영화에서 스타로 자리를굳힌 3명의 배우들이 영화가 완성된후 잇달아 의문에 싸인채죽었다.

첫번째 희생자는제임즈·딘. 이어니·애덤즈가 또 제3의 주인공이었던 살·미네오가 난도질당한 시체로 발견됐다. 이런 일련의 사건에 이어 이번에는 「이유없는 반항」에서 아카데미 최우수 조연상수상자로 지명됐던 내탤리가 익사체로발견된 것이다. 【P】

"나도 脅迫받았다" 某大學學長 織物회사장

——금복주社長집事件전후 大邱서 연쇄발생

巨額요구 편지·전화 수차례

富裕層·유명人士 가족 不安

檢·警 극비捜査 뒤늦게 밝혀져

【大邱=具用書·鄭榮鎬기자】 금복주사장 金洪植씨(55)집 폭파협박사건을 전후해서 大邱시내에서 상류층 인사들 여러건 잇따라 발생, 경찰이 극비리에 수사중임이 뒤늦게 밝혀졌다. 金씨 이외에 협박을 받은 사람들은 大邱시 섬유회사 사장등인데 모두가 거액의 현금을 요구당했으며 협박편지에 이어 협박전화를 받았다는 점이 공통점이다.

모대학 학장은 지난 7월 초순으로 범인은 『17일밤 학교와 야산전주밑에 현금1천1백만원을 비닐봉지에 싸 파묻어 놓아라. 이같은 사실을 경찰에 알리거나 말을 듣지않으면 모두 죽이겠다』고 협박했다는 것. 협박편지는 양면괘지 두장에 깨끗하고 예쁜글씨로 『학장님을 뭡소 존경해 왔읍니다』라고 정중하게 시작해 돈이 꼭 필요하니 도와달라고 사정했는데 편지에는 현금을 묻을 장소를 그린 약도까지 함께 그려보냈었다.

또 범인은 돈을요구한 닷새후인 지난7월17일 상오10시께 학장실로 전화를걸어 『학장님께 편지를 보냈는데 받았읍니까』고 물어 비서가 『모르겠다』고 말하자 『학장님을 바꿔달라』고 말했다가 전화를 끊어버렸다는것.

전화를 건 범인은 목소리로보아 27~28세 가량의 남자로 보였는데 며칠 후에는 여자가 학장을 바꿔달라는전화를 걸어와 학장이 받자 『잠깐 기다리세요』라고 말한뒤 남자를 바꿔주는듯 하더니 아무 말 없이 끊어버렸었다.

이밖에 大邱시내 모재벌급 직물공장 사장에게도 거액을 요구하는 협박편지와 전화가 2~3차례 걸려와 가족들을 불안하게 하고있다.

협박을 받은 직물공장은 범인들의 약속대로 현금을준비했으나 경찰이 잠복한사실을 알은 듯 범인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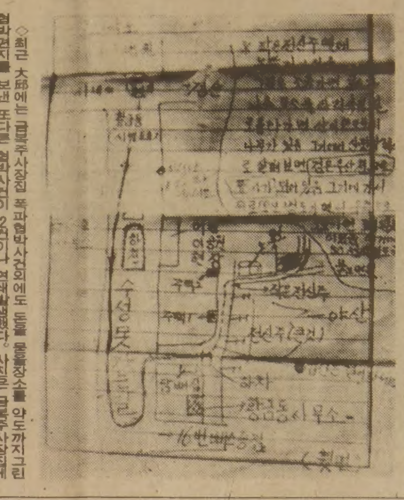
이같은 협박사건이 계속되자 협박대상자와 그가족들은 외출을할때도 항상 불안해하고있으며 혹시 길거리에 젊은 남자가 서있어도 『저놈이 협박범이 아닌가』고 멈칫할 정도라는 것.

한편 大邱시내에 잇따라 거액을 요구하는 협박사건이 발생한데다 금복주사장집 폭파및 협박사건까지 잇따라 일어나자 大邱지방검찰청은 경찰을 지휘, 이사건들이 범행수법이나 시기로 미루어 동일집단의 범행이 아닌가보고 극비리에 수사를 벌이고 있으나 한건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검찰은 협박편지의 필적과 전화 목소리로 미루어 각 협박사건이 동일범은 아니고 서로 각각 다른 범인일 것이라는 심증만 굳히고 있다.

한편 금복주 사장집폭파사건을 수사하고있는 大邱경찰은 당초 원한에 의한 범행일 것으로 추정했던 수사방향을 단순히 돈을 요구하는 계획범행것으로 바꾸고 3~4명이 치밀한 사전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보고 있을뿐 사건발생 두달이 가까와오도록 단서조차 잡지못하고 있다.

이처럼 연쇄협박사건이 발생한것은 大邱에서는 드문일로 한 수사관계자는 작년에 경북도내에서 4천여명의 폭력및 불량배들이 순화교육을 받고 상당수가 풀려나왔다는 사실을 지적, 이들에의한 범행이 아닌가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大邱에는 금복주사장집 폭파협박사건외에도 돈을 묻을장소를 약도까지그린 협박편지를 보낸 또다른 협박사건이 2건이나 연쇄발생했다. 사진은 금복주사장집에 보내진 편지.

社長집에 強盜 부인被殺…金庫털려

쇠파이프 식칼發見 남편重態

서울 한독工業 아랫층 食堂종업원 手配

◇숨진 李孟熙씨와 중태에 빠진 남편 金起永씨.

4일 상오8시50분께 서울 鍾路區觀水洞154의2 한독공업주식회사 서울사무소 2층 내실에 강도가 들어 잠자던 이회사 사장 金起永씨(53)와 부인 李孟熙씨(51)를 쇠파이프와 식칼로 머리를 때려 부인 李씨는 숨지고 金씨는 중상을 입었다.

金씨가 경영하는 1층 미숯불구이집 종업원 高京子씨(31·여)에 의하면 평소 8시면 일어나던 두사람이 일어나지않아 2층내실로 올라가 문을 열어보니 벽과 방바닥에 피가 묻어있고 두사람이 이불에 덮혀있어 경찰에 신고했다는것.

2층내실에는 대형금고와 소형금고, 손금고등 3개의 금고가 있었으나 1층 삼미집에서 사용하는 손금고만 열려진채 비어 있었으며 소형금고는 드라이버종류로 열려다 실패한 흔적이 있었다.

범인은 베이비못장도 뒤져 옷을 방바닥에 흩어놓았으며 범행에 사용한 직경5㎜, 길이30㎝의 녹슬은 쇠파이프와 1층식당에서 사용하는 길이25㎝ 식칼이 피가 묻은채 있었다.

숨진 李씨는 이마와뒤통수등 4곳을 쇠파이프로 맞았으며 金씨는 뒷머리가 쇠파이프로 맞아 파열돼있었고 귀밑과 손이 칼에 찔려있었다.

범인은 범행후 2층 한독공업(주) 창문을 뜯어내린후 의자를 놓고 나가 옆집 지붕을 타고 달아났다.

경찰은 지난11월29일 鍾路구직업안내소를 통해 삼미숯불구이집에와 일하던 종업원 金모군(17·강원華川郡史內面)이 전날밤 새벽1시까지 소주를 마시고 식당종업원방에서 잠을잔후 없어졌다는종업원 高씨의 진술과 병원에입원해있는 金씨가 『金군이 때렸다』는 진술에따라 金군을 용의자로보고 찾고있다.

중태에빠진 金씨는 10년전 이곳 1·2층을 전세내 식당을 경영하다 3년전부터 전기순간온수기제조업체인 한독공업주식회사를 경영해오

한국 金3·銀3·銅賞2

제네바國際發明·신기술展示會서

제10회 제네바 국제발명및 신기술 전시회에서 우리나라는 金賞3, 銀賞3, 銅賞 2개등 8개의 상을 받았다.

4일 特許協會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오는6일까지 열리게 되는 이 전시회에 우리나라는 모두 11점을 출품했는데, 이중 申錫均씨(한국발명학회)의 「카메라입체촬영렌즈」元仁鴻씨(盛垣産業기술연구소)의 「태양열및·集風장치를 이용한 건조장치」, 裵昌桂씨의 「절첩식 과일상자」등 3개 작품이 금상을 받았다.

이 전시회에는 세계28개국에서 7백여종의 발명품이 출품됐으며 우리나라는 지난77년 6회 전시회때부터 참가, 지난해까지 特別大賞인 WIPO賞을 비롯, 모두 24개 상을 받았다.

◇金賞을 받은 카메라입체촬영렌즈─ 2면평형렌즈를 써서 일반카메라로 입체사진을 찍을수있게 고안됐다.

46個도로 927㎞포장

江原 86年까지 2千7百81億들여

【春川=聯】 강원도는 내년부터 오는 86년까지 5년간 2천7백81억원을 들여 도내 46개노선 9백27㎞의 도로를 포장키로 했다. 86년 아시안게임및 88년서울올림픽 개최계획과 관련 추진되는 이 도로포장사업은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春川~華川간 28㎞등 9개노선 3백52㎞의 국도와 三陟郡道溪邑新里~三陟郡近德邑月川里간 36㎞등 15개노선 2백51㎞의 지방도, 平昌郡珍富~水項간등 22개노선 3백24㎞의 군도를 포장, 현재의 도로포장률 24.3%를 대폭 끌어올려 벽지주민의 교통난해소는 물론 지역간의균형있는 발전을 꾀하기로했다.

沈沒경비정 수색중 두失踪者 시체인양

【注文津=聯】 속보=침몰경비정 강원1호(25톤)의 실종자수색작업을 벌이고있는 江陵경찰서 구조대는 3일낮 濱州군청직원 李在東씨(20)와 전투경찰대金振徹씨(21)등 2구의 시체를 각각인양했다.

流星의 賦

<252>

李炳注 作
李友範 畫

感傷異國月 ⑱

좁은 땅이라 볼 것을 다보고 나니 지리한 나날이 계속되었다.

6월 초, 일행은 대마도를 떠나, 그곳에서 480리 떨어진 일기(壹岐)로 향했다. 일기의 풍본포(風本浦)에서 도주의 영접을 받았다. 이곳은 대마도와는 달리 토지가 비옥하여 농산물이 풍부하다고 한다. 그런 탓인지 향응의 음식이 대마도의 경우보다 3배나 푸짐하다.

풍본포에서 순일(旬日)을 지내고 남도(藍島)로 갔다. 남도는 축전주(筑前州)에 속한다고 했다. 첨산(尖山)이란 반월(半月)처럼 둘러싸인 가운데바다는 아름답게 유착이고, 언덕엔 전답이 있고 그 사이의 숲에 민가가 산재해 있는데 그 경색은 실로 신선경(神仙境)이라고 할만하다. 훗계남은 풍랑에 지친 몸과 마음으로도 황홀한 기분을 느꼈다.

제공된 숙소도 화려했다. 음식의 대접도 풍족했다. 통신사 일행에게 제공되는 닭만도 수백마리, 달걀이 수천개 였다고 하면 나머지는 말하지않아도 상상할만 하다.

일행은 모두 남도의 풍광을 칭찬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차천락은 갑이 해변을 걸으며 훗계남에게

『이런데 살고 있으면 불원 우화등선(羽化登仙)하겠다』

며 웃었다.

아니게 아니라 광대한 바다를 관면으로수, 려한 산들을 또 한편으로 돌길을 산책할 제, 민가의 산울타리에 만발한 꽃을 보고, 닭 우는 소리와 함께 죽리화음(竹

風陰)에서 바둑을 두는 광경을 보는 것은 실로 선경(仙境)을 거니는 기분이 아닐 수 없을 것이었다.

하루는 계남이 차천락과 역관과 동도해서 남도의 서쪽에 있는 서산에 올랐다. 산의 높이는 수백인(仞), 고송장삼(古松長杉)이 골짜기를 꽉 채워 낙락하고 유목방초(茂木芳草)가 길 양편에 무성했다. 산정(山頂)에 올랐을 땐 모색(暮色)이 참연한데 아득히 해안선을 백리 밖에까지 바라볼 수 있었다. 어선이 원근에 음현(陰現)하여 거울 같은 수면 위로 미끄러지듯 왕래하는 것이 신선한 감동이기도 했다. 산허리 취벽(翠壁)은 우람하고, 구름은 수평선에 접했는데 송회가 일자 도섬(濤聲)이 이에 응한다.

『이 경치가 어떻소이까』

하고 역관이 물었다.

『망연자실, 할 말이 없소이다』

계남의 대답이었는데 차천락은

『천도(天桃)를 얻어 신선이 되었다는 동방삭(東方朔)도 이와 같은 경치 보질 못했을 것이오』

하고 낮게 신음한 것은 시정(詩情)이 동함을 억제하지 못한 탓이 아니었을까 했다.

돌아오는 길에 어떤 민가에서 쉬었다. 노부부가 살고 있는 집이었는데 좌우의 항아리엔 곡식이 가득 차 있었고 뜰에 덕석을 깔고 잡곡을 말리고 있었다. 주방의 기물들은 빈약한 듯 했으나 조촐하고 생활에 윤기가 흐르고 있었다. 그만큼 이 섬의 사람들은 궁색을 모르고 살아가는 듯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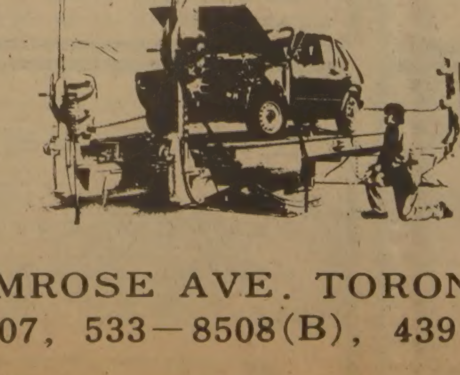
집 옆에 석단(石壇)이 있고, 그 위에 소철(蘇鐵)이 심어져 있었다. 크기는 한아리만 하고 그 가죽은 비늘같이 되어 있었다. 높이는 2척, 잎은 파초보다 길고, 푸르며 굳었다. 이 나무는 뽑아서 햇빛에 말려놓았다가도 철정(鐵釘)을 쳐서 심어 놓으면 다시 살아난다고 했다. 그래서 「소철」이라고 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일본엔 기이한 식물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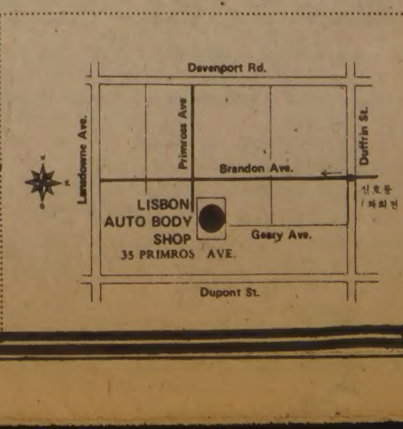
개업특별봉사

*A. CLASS LICENCE BODY MAN
*A. CLASS LICENCE PAINTER
*GUARANTEE WORKMAN SHIP
*사고후 보험처리
*OVEN BAKED FINISH
*COMPLETE BODY WORK
*TOWING써비스
*수리중 차대여

●교민 여러분께 개업특별 써비스!
●능숙한 기술과 철저한 신용으로 봉사
●수리후 문제점에 대한 책임보증

이 영 두, 이 건 학





주소 :·35 PRIMROSE AVE. TORONTO M6H 3V1
전화 : 533－8507, 533－8508(B), 439－6548, 266－8925(R)

LISBON AUTO COLLISION INC.

한국 7명 2회전 진출

스칸디나비아卓球

단체전 男女 모두탈락

女子개인전

【베세(스웨덴)=李廷元특파원】한국탁구남녀대표팀은 3일밤(한국시간) 개막된 제24회 스칸디나비아·오픈탁구대회 단체전에서 모두패퇴, 초반탈락의 비운을 당했다.

李壽子 黃男淑 安海淑 金貞美로 구성된 한국여자A팀은 1회전서 부전승, 2회전서 프랑스를 3-0으로 완파하고 준준결승에 올랐으나 뜻밖에도 체코에 3-1로 완패, 4強문턱에서 떨어졌다.

한국여자팀의 에이스인 李壽子는 의외로 부진, 첫단식에서 유리코바에게 21-12, 21-13으로, 마지막 3차단식에서 하라코바에게 21-18, 21-17로 완패했으며 승부의 분수령이된 복식에서는 黃男淑·安海淑조가 유리코바·하라코바조에 21-13, 12-21, 21-15로 패배, 토틀 3-1로 무릎을 꿇었다.

국내선발전서 부진했던 安海淑은 2차단식서 전진속공의 왼손잡이 하라코바를 2-0으로눌러 영패를면했다.

한편 이날 시작된 여자개인단식에서는 1번시드의 李壽子를 비롯, 7명이 2회전에 진출했다.

한국선수중 유일하게 梁英子만은 발부상으로 헝가리의 오로라에게 3-2로 석패, 탈락했다.

◇전 적

▲여자단체준준결승

체코	3-1	한국A
유리코바	2-0	李壽子
하라코바	0-2	安海淑
유리코바·하라코바	2-1	黃男淑·安海淑
하라코바	2-0	李壽子
中共A	3-0	헝가리B
中共B	3-0	유고A
스웨덴A	3-1	핀란드

▲남자단체준준결승

中共A	3-0	폴란드
유고A	3-0	스웨덴A

▲여자개인단식1회전

黃男淑	3-0	메르케레
朴末粉	3-1	존슨
安海淑	3-1	스자보
金貞美	3-0	블랑케르트
白良美	3-0	데비라크바
辛敬淑	3-1	페터

한국、臺灣과 예선

國際배드민턴

【臺北3日DNA=聯】韓國과 대만은 토머스·컵 국제배드민턴선수권대회 아시아지역 예선전의 일환으로 5·6일 양일간 臺北 체육교육대학에서 단식 5게임, 복식 4게임을 벌인다.

여기서 이긴팀은 내년초 타이랜드와 대전하게된다. 3년마다 개최되는 토머스·컵 국제배드민턴대회는 내년5월 런던에서 열리며 지난번 우승국은 인도네시아였다.

競步·無舵4인승등 내년부터 國內첫선

올림픽種目 普及시키려

올림픽대회의 경기종목이면서도 선수가 없거나 운동장용구등 시설미비로 국내에서는 거행되지않던 복싱의 슈퍼·헤비급, 조정경기의 無舵4인승, 육상의 20km 및 50km競步경기등이 내년부터 선보이게된다.

대한체육회는 88서울올림픽개최에 따른 준비의 하나로 올림픽경기종목이면서도 국내에서 경기가없었던 종목의 경기인구화보를위해 이들 비인기종목경기를 내년부터 거행하도록 육상·수영·조정등 6개경기단체에 지시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선보일 경기종목은 다음과같다.

▲육상=20km및 50km경보경기 ▲수영=수중우용 ▲복싱=슈퍼·헤비급 ▲조정=無舵4인승및 2인승 더블스컬 ▲승마=종합마술경기 ▲사이클=벨로드롬4개종목

加盟단체 組織강화 檢討

體育會 五輪·아시안게임 對備

대한체육회는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하계올림픽에 대비, 가맹경기단체들의 조직을 크게 개편, 강화할 방안을 검토중이다.

체육회는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을 치르기위해서는 현재의 경기단체조직과 인력으로는 국내외 업무를 감당할수 없다고 판단, 획기적인 개선책을 검토중에 있다고 4일 한 관계자가 밝혔다.

현행 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규약준칙(제11장 부칙34조)에 따르면 경기단체임원은 회장과 감사2명을 포함, 15명 이내로 구성토록 돼있는데 이인원으로는 앞으로 폭주한 국내외 업무량을 감당할수없다는것이다.

뿐만아니라 현재 경기단체들의 회장단을비롯한 임원들은 모두 무보수로 봉사하고 있는데다가 막대한 운영비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 제도적인 보장이나 뚜렷한책임의 한계가없어 일관성 있는 행정을 펴지못하고있는 형편이다.

올림픽 TV中繼料 유럽엔 千9百萬弗

【로스앤젤레스3日UPI=聯】로스앤젤레스올림픽준비위원회는 2일 31개 유럽및 地中海국가들로 구성된 유럽방송연맹(EBU)에 84년 로스앤젤레스올림픽중계권을 1천9백80만달러에 팔았다고 발표했다.

이는 80년 모스크바올림픽중계료의 4배에 해당하는 액수이나 올림픽준비위원회는 당초 8천4백만달러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日陸聯 서울올림픽 대비

陸上 주니어代表 11명선발

日本육상연맹은 7년후의 88년 서울올림픽에대비, 11명의 주니어대표 선수들을 선발했다.

오는84년의 로스앤젤레스올림픽에 대비한 마라톤의세꼬·도시히꼬, 소·시게루, 소·다께시등 우수선수 10명을 이미 선발한 日本육련은 지난달 30일 서울올림픽을 겨냥하여 선수를 조기선발했다고한다.

日本의 이같은 조기선발은 사상 최초이며 그만큼 서울올림픽에 거는 기대가 큰것으로 보인다. 日本이 서울올림픽 출전후보로 뽑은 선수들은『여자 세꼬』로 불리는 마스다(增田明美·成田高3년)를 비롯, 남자7·여자4명이다.

마스다는 키1m50, 몸무게38kg의 왜소한몸으로 여자1만m의 日本신기록(33분1초5)을 가진 유망주이다.

日本육련은 이들 11명을 로스앤젤레스올림픽 출전선수들과함께 훈련시킬 예정인데 서울올림픽이 결정되기전에 우수선수 40명을 선발해 놓았다가 이번에 11명을 주니어대표로 확정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對유엔外交 적극展開

政府、각종 活動참여 加入여건 造成키로

尹大使、第6委서 첫연설

정부는 유엔의 각종활동에 적극참여, 실질적인 기여를 하는 한편 유엔가입 실현을 위한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는등 적극적인 對유엔외교를 벌일 방침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尹錫憲駐유엔대사는 지난 10월23일 제26차 유엔총회제2위원회(경제분야)에서 연설한데이어 3일에는 제6위원회(법률분야)에 참석, 이위원회에서 현재 토의중인「국제법교육·연구및 弘報분야에서의 유엔원조계획」에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尹대사는 이날 연설을통해 국제법분야의 교육을 위한 유엔의 노력을 높이평가하고 내년중 아시아·太平洋지역에서 개최키로 예정된「亞·太平洋지역 국제법훈련및 연구과정」회의를 한국에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엔총회 제6위원회에서 우리나라대표가 발언한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무부 당국자는 4일『정부는 앞으로도 경제·사회·문화·법률등 각종 非政治的인 분야에관한 토의에 계속 참여, 적극적인 발언을 통해 유엔회원국에 준하는 활동을 벌일계획』이라고 밝혔다.

韓日友好증진이 東北亞평화寄與

高民社黨首·사사끼

高貞勳民社黨 당수와 訪韓중인 사사끼·료오사꾸(佐佐木良作) 日本民社黨위원장은 3일 韓日간 우호증진이 東北亞의 平和와 안정에 중요하다는데 의견을같이하고 이를위해 兩黨이 공동 노력키로 합의했다.

兩黨당수는 이날낮 회담후 共同신문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社會主義 인터내셔널(SI)精神에 입각, 국제連帶강화·東西긴장완화를 위해 노력하는등 국제활동에 있어 姉妹黨으로 상호협력해 나갈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茶한잔 1千원 큰부담

「불우이웃돕기찻집」承認신청 殺倒

慈善보다民弊만

利益金 서클運營費로

다방業主、休日도 變態영업

【原州=聯】불우이웃을 돕는 효과보다 민폐가 크다고 한때 승인을 해주지않아 중단됐던 불우이웃돕기 일일찻집이 연말을 맞아 승인신청이 쇄도, 다시 고개를 들고있다.

강원도原州市는 지난해 각 사회단체에서 불우이웃돕기명목으로 일일찻집을연후 이익금을 불우이웃돕기에 희사치 않고 서클운영비로사용, 민폐만 조장시키고 있다고지적, 일일찻집운영승인을 일체안해주었으나 올들어 연말을 맞아 몇개소에 일일찻집운영을 다시 승인해주자 일부단체에서는 티킷을 마구발행, 평소 찻값의 2~3배인 5백~1천원씩 받고 팔고있어 민폐를 끼치고있다.

특히 쥬리아 꽃생화장품原州대리점에서는 4일 原州市中央洞 백궁다방을 9만원을 주고 세낸후 티킷1장에 5백원에서 1천원씩 선금을받고 마구 판매하고 있는것을 비롯 K사회단체에서도 오는 13일부터 일일찻집을 열기로하고 티킷을 남발하고 있는등 각단체에서 앞을 다투어 불우이웃돕기 일일찻집을 서두르고있다.

한편 불우이웃돕기일일찻집을 여는 이들 사회단체에서는 하루10만~15만원을 주고 다방을 임대영업을한후 코피원료대등을 빼고나면 이익금이 적어 이를 단체명의로 희사할수없게되자 서클운영비등으로 사용해버리는등 이익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지못하는 경우도 있어 다방업주만 이득을 보고있다.

또 일부 다방업주들은 정기휴일제도를 무시한채 일일찻집을 열게해 변태영업을 하고있다.

原州市는 이에대해『불우이웃돕기를 한다는것은 좋으나 어떠한 형태로든 티킷도발행할수 없으며 규정된 찻값이외에는 더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메이저리그 選手들 罷業으로 收入늘어

【뉴욕AP聯=聯】美國프로야구 메이저·리그의 각지구우승팀들은 50일간의 시즌도중 스트라이크로 오히려 더 많은 이익배당의 횡재를 잡았다.

81년도 아메리칸·리그와 내셔널·리그의 챔피언결정시리즈와 월드·시리즈의 순수입은 9백33만8천8백3달러59센트. 거기에다 예년에 없던 각지구 결승시리즈에서 2백36만5천2백16달러59센트의 수입이 불어났다.

월드·챔피언인 로스앤젤레스다저스가 3개 결승시리즈를 통해 배당받은 수익금은 총1백78만7천1백53달러. 다저스는 이 수익으로 48명의 선수와 19명의직원에게 그공헌도에따라 배분했다.

다저스에 역전패한 뉴욕·양키즈도 월드·시리즈에서 활약한 30명에게 2만8천8백45달러씩, 지구결승시리즈에서 공헌한 24명에게 1만7백64달러씩배분, 결승시리즈서 민 주전급 선수들은 3만9천6백9달러씩의 이익배당을 받았다.

난까이팀入團

동포 金信夫투수

【東京支社】日本프로야구난까이(南海)호크스에 드래프트1번으로 지명돼 6천만엔의 계약금을요구했던 在日同胞투수 金信夫(18·市川高)는 4일 南海와계약금 3천3백만엔, 연봉 3백20만엔의 입단조건에 합의, 오는20일 정식입단계약을 맺기로했다.

日本고교야구1급투수로평가되고있는 金信夫는 당초 긴데쓰(近鐵)에 1위로 지명된 같은 在日同胞 金義明(18·報德學院)과의 라이벌의식때문에 金과같은 6천만엔의 계약금을 요구, 南海측을 곤경에 빠뜨렸었다.

南海의 호리이 스카우트부장과 아라야마 스카우트담당은 3일 하오 市川高를방문, 金信夫와의 2차교섭에 나서 입단협상에 성공했다.

金信夫는 1m82, 73kg의 좋은체격을 가졌으며, 투수의재질면에서는 金義明을 능가하는것으로 호평되고 있다.

◇沈熏문학의산실인 충남 唐津郡 松嶽面 富谷里「筆耕舍」가 관리인이없어 날로 퇴락해가고있다.

海風 沈熏선생 文學産室

「筆耕舍」퇴락일로… 補修시급

【大田=聯】소설가이자 시인이었던 海風 沈熏선생(1901~1936)의 문학의 산실인 筆耕舍(충남唐津郡松嶽面富谷里)가 돌보는이가 없어 퇴락되고있다.

대지32평, 건평18·8평에 목조기와집인「筆耕舍」는 일제의 문화말살정책이 한창이던 1932년부터 35세의 아까운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 전인 1936년까지 4년동안 살면서「常綠樹」·「黃金의 최후」등을 집필했던 沈熏문학의 산실.

서울에서 이주후 부모와 1년을 지낸 海風은 1933년 창작활동을 위해 자신이 집터를 정하고 설계까지 해 건축한뒤 스스로 筆耕舍라 이름했다.

그후 4년, 沈熏이 1936년 9월16일 작고하기 직전까지 4년동안 거주하던곳이다.

海風이 세상을 떠난뒤 20여년동안 타인이 살다가 1954년 그의 형수인 權猶喜씨가 전도사업을 위해 예배당으로 사용해왔다.

이교회가 교세가 확장되자 지난 70년 다른곳으로 신축이전하게 되자 海風의 큰조카인 沈載英씨(67·唐津郡松嶽面富谷里)가 이를 사들여 원형보존에 힘써왔다.

그러나 새마을도로가 마당한가운데로 관통했고 내부시설은 물론 창문이 떨어져 나간채 볼품없는 흉물로 남아있어 보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하고있다.

히로뽕 5億臺 밀반출

外航선원·日人등짜고 3회5kg

4명拘束·4명手配

【釜山=聯】부산지검특수부 金柄兩검사는 4일 히로뽕을 일본에 전문적으로 밀반출해온 신흥해운소속 화물선 9남성호선원 金태진씨(40·釜山鎭區 楊亭4洞112)와 국내판매책 金영민씨(46·상인·中區大廳1洞54) 朴무석씨(43·西區桃亭2洞33 1 국제호텔오락실경영) 裵정명씨(40·西區下端洞506)등 4명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국내구입책 金남천(40) 朴용섭씨(42)등 4명을 같은 혐의로 찾고있다.

검찰에 따르면 선원 金씨는 지난해8월 金영민씨의부탁을 받고 히로시마(廣島)거주 다께야마씨에게 히로뽕 1kg을 몰래 운반해 준것을 비롯 지금까지 3회에 걸쳐 5kg의 히로뽕(싯가5억원)을 운반해줬다는것.

또국내판매책 朴씨등 3명은 지난해8월부터 지난 6월까지 수배중인 4명으로부터 국내에서 제조한 히로뽕 10여kg을 1kg에 4백50만원씩에 공급받아 외국인및 재일동포와 내국인들에게 팔아왔다는 것이다.

나의 이력서

〈題字·元一漢〉

元一漢 ⑩

受難겪은 할아버지 銅像

27년 延禧캠퍼스에 첫建立

미국기독교 북장로교 남북감리교 캐나다장로교 선교부 연합위원회의 관리하에, 延禧전문학교가 문을연것은 1915년4월이지만 재단법인으로 정식 설립인가가 난것은 1917년4월이다.

延禧의 설립인가해는 나의 태어난해와같아 同甲이되는 셈이다. 할아버지가 초대교장 아버지 元漢慶박사가 3대교장을 역임한 관계로 우리「元씨」집안의 본관을 新村또는 延禧로 부르는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할아버지가 延禧전문학교를 설립할때 그의 형인 존·티·언더우드가 특별히 학교건립기념으로 당시 미화로 5만달러를 희사했다.

이 기부금으로 경기도 高陽郡 延禧面 송림이 울창한 토지 20만평가량을 교지로 매입하였고 그후 해마다 얼마씩 토지를 더 사 보탰다.

할아버지 형제들은 신앙이 매우 깊었고 선교사 봉생의 일을 적극 도와 延禧전문학교의 중심교사를 짓는데 큰힘을 더했다.

할아버지형제는 5남매(2남3녀)로 증조부가 잉크회사를 경영했는데 뒤에 이를 인수한 존·티·언더우드는 타자기회사를 차려 돈을 모을수 있었다.

종전의 타자기는 타자가 완전히 끝난 뒤에야 글자를 볼수 있었으나 타자하면서 글자를 직접 볼수있는 기계를 처음으로 개발, 크게 성공한 것이다.

이때 지은 언더우드홀(화관)은 할아버지를 기념한것이며 아펜젤러홀(상경관)은 북감리교 선교의 선구자를 기념하여 명명됐다.

이러한 건물은 당시 미국설계기사들을 초청하여, 설계하고 측량했다. 캠퍼스의 지리적 조건을 감안하여 마스터플랜을 만들었다.

공사의 총감독은 화학교수였던 E·H·밀러가 맡았는데 延世의상징인 백양로는 이때 이루어졌다.

밀러교수는 초기 농과학생들의 실습으로 백양목을 심어 유서깊은 백양로의 역사를 만든것이다.

◇아버지 元漢慶박사가 안식년을맞아 미국에 갔을때 선교지역인 한국의옷을입고 찍은사진. 어머니 에델·반·와그너와 나도 한복을 차려입었다.

해방후 再建立 6.25때 파괴 55년 세번째 復元

할아버지의 동상이 延禧캠퍼스에 세워진것은 1927년으로 제막식에는 尹致昊 安在鴻 宋鎭禹 朴泳孝 金性洙씨등이 참석했다고 한다.

爲堂 鄭寅普선생이 지었다는 고어체로된 동상 銘文은 할아버지의 한국에서의 발자취를 더듬어 볼수 있게한다.

『이 동상은 예수·지·언더우드 박사라 쥬강생 천팔백오십구년 월에 박사 이십오의 장년으로 결음을 이 땅에 옮겨 삼십삼년동안 선교의 공적이 널리 사방에 퍼지고 큰하교로는 연희전문이 이루히니 그럴사 박사 늙으시도다. 신학문의 높은 학위는 박사이름 빛어 무거움이 아니라 얼굴로 좇아 얼른 살피기 어려우나 이렇듯이 연세보다 지나쇠함을 볼때 누구든지 고심으로 조선민중의 밀음과 슬기를 돕는 그의 평생을 생각할지로다. 베픈바 날로 늘어감을 따라 우리의 사모 갈수록 깊으매 적은 힘을 모아 부은 구리로서나 방불함을 찾으려 함이라. 뉘 박사의 일생을 오십칠세라 하더뇨. 박사 의연히 여기 계시도다』

할아버지 동상은 수많은 수난을 겪었다. 일제말기 일본사람의 손에 빼앗겼다 해방후 동문과 사회인사의 손으로 다시 세웠으나 6·25때 공산침략군의 손으로 또다시 파괴된것을 지난55년 세번째 다시 세웠다.

이처럼 할아버지는 사후에도 한국의 역사와 더불어 고락을 같이한 분이라고 할수있다. 생전에도 그랬듯이.

한국일보 詩壇

아내의 고향

申瓚均

시집올 때 꽃가마를 탔다는
시어머니의 자랑에도
곧잘 노하는
아내의 고향은 달나라보다도 먼
평안도 무메산골이다.

콜럼비아호를 타도
갈 수 없는 나라
아내가 자란 땅에는
잡초가 뿌리채 뽑히는 툰드라
장인의 묘지도 없는 땅이다.

지도를 펴고 애를 써도
기억에도 없는 백지이다
이곳에 눈이 오면
그곳은 바람이 부는 나라
손을 들면
발을 들고
소리치면 안겨오는
메아리도 없는 곳이다

아내의 고향은
호적에 없고
항상 부르는 고향의 봄.

헤어질 때
장인의 나이였던 아내는
세아이의 어미가 되고
이제는 제몸을 껴안으며
낯선 고향을 날아가는
날지 못하는 철새가 됐다.

블론디 딘·영作 本社特約·連載漫畫

"당신 뭘팔고 있는 거요?" "보통감기치료제를 바로 제손으로 받쳐들고 있읍죠" "그게 뭔데?" "커다란 손수건 입죠!"

조규혁 종합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상점보험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광고는 왜 필요한가….

"다음의 글은 미국의 유명광고 전문지가 최고 최근 발표한 내용이다. 광고의 효용성, 광고의기능에 대해 광고주들은 한번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미국인들은 위스키, 커피, 시가등과 같이 광고를 많이하는 상품들을 멀리하는 대신 광고를 심하게 하지않는 대용상품들을 좋아하는 소비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물론 어떤 상품들과 서비스들은 광고효과를 보고있다. 예를들면 디자이너 청바지를 들수있다.

원래 광고효과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광고가 첫째 소비자들이 상품과 서비스를 찾는데 드는 노력과 시간을 절약케 한다고 두둔하고 있다. 둘째 광고는 소매가격의 경쟁을 촉진시키고 셋째 신문, 잡지, 레디오, TV등과 같은 매스·미디어의 수입원이 됨으로써 뉴스와 대중들을 위한 연예 프로그램비용을 줄인다는 것이다. 넷째 광고는 대량생산품들을 위한 대량의 판매시장들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고, 다섯째 새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는 역할을 하며 여섯째 경제성장을 촉진시킨다는것이다. 전국 방송망을가진 TV의 하루 평균광고량은 1970년이래 거의 곱절로 늘어나 현재 585건에 달하고있다.

한 경제전문가에 의하면 한 가정당 681달러씩 소비한 금액과 맞먹고 있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더라도 광고성장률은 지난 1900년도초이래 미국인구 성장률보다 빠르며, 1976년이래 GNP와 개인소비지출 상승률보다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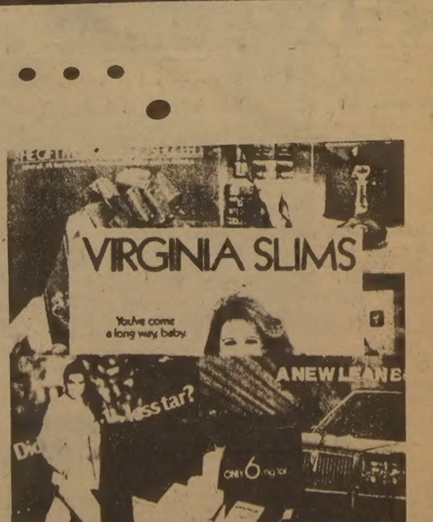
일반상품제조업자들뿐 아니라 지방, 주, 연방정부들도 광고를 늘이고 있다. 예를들면 2년전 미군모집광고에 9천9백달러를 소비했던국방성은 금년에 약 1억4천만달러로 증가시켰다.

광고량의증가현상이면에는 판매시장을 둘러싼 광고주들의 경쟁에 있다. 업자들은 자기상품이 잘팔리지 않게되면 "다른 광고는 소비자들이 상품선택을 바꾸도록 자극하거나 새상표를 사용하도록 자극하지, 전반적인 소비량에 영향을 주는것은 아니다."고 말하고 있다. 광고량은 계속 늘고있다. 작년도 광고비용은 총5백46억달러였다. 이것은 국민총 생산고(GNP)의 2.1%와 총개인소비지출액의 3.3%에 각각 해당하며, 미국의 업자들의 상품을 상대적으로 헐뜯는 광고를 게재하고 있다. 이같은 광고는 보복을 유발시켜 광고게재량을 증가시킬뿐만 아니라 광고요금을 인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모두가, 자기의 판매시장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결과 업자들의 생산비용만 오르게 되었다. 광고량의 증가현상은 경제가 침체되고 판매가 부진하면 광고량도 줄어들던 전통적인 광고양상에 이변을 초래했다. 이전에는 장사가 잘안되면 광고예산을 줄이는것이 상식이었으나 이제는 거꾸로 광고예산을 더 높이고 있다.

유명한 초코레트 제조회사인 허쉬가 좋은예이다. 좋은품질 제공이 가장 좋은광고라고 주장하며 전통적으로 광고를 기피하던 허쉬는경쟁회사가 광고를 통해 판매시장을 석권하자 할수없이 광고를 시작했다. 허쉬는 한때 초코레트 제조원료인 코코아값이 폭등, 이윤이 떨어지자 광고를 줄였다. 그결과 매상량이 또 떨어졌다. 다시는 이같은실수를 범하지 않겠다고 맹세한 허쉬는 판매가 부진할 때라도 계속광고예산을 높이고 있으나 아직도 경쟁업자를 따라잡지 못하고있다.

작년도 광고비용 5백46억달러 가운데 3백3억달러는 전국적인광고에 소비되었다. 이것을 광고매체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TV 84억달러(28%) ●우편 76억달러(25%) ●잡지 31억달러(8%) ●비지네스 정기간행물 17억달러(6%) ●라디오 10억달러(3%) ●옥외광고 4억달러(1%) ●기타 57억달러(19%).



한국일보사 광고부제공
533-2361~4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 인

매니저구함. 주매상 : $6,000이상인 성업중인 그로서리 스토아임. 약간의 보증금 요함.
☎ : 481-4474, 439-4885(MR.김)

GAS ATTENDANT구함
☎ 782-6311

도나스샵에서 6일 밤일하실 여자분 구함 (밤11시~아침9시) 스카보로지역
☎ : 284-9325(Mrs. 남)

애기 봐주실분 구함(입주 또는 출퇴근해서)
☎ : 884-3031

매매및 양도

HUNTS BAKERY
X-MAS 생일, 단체용 CAKE 주문
☎ : 769-4347 (던다스 AND 스카렛)

작은 그로서리 스토아 가정형편상 매매
이층방 포함 렌트 : $650
☎ : 656-7753

야마하 피아노 매매 :
4년간 사용, $3300
☎ : 881-8230

도나스 샵과 햄버거 샵 매매
(다운타운지역)
월 순이익 $15000 보증, 권리금 $295000
☎ : 531-2689 미스타 박

생선가게 매매 : ROYAL YORK & QUEENS WAY
259-1585의 JOE, OR
364-3883의 FRANK에게 연락요.

트라우트 농장 매매 : 연매상 8만달러
관심 있으면 쥬디 브라운에게 연락요
해밀턴 523-7510 D. M. ROBBINS INC.

밀크스토어를 찾으십니까?
소자본으로 인수 가능
스탁은 은행에서 모게지 조정가능
현재는 CHAIN 스토어임
지역 : 오사와, 버링톤, 해밀톤, 피터보로, CEAFORTH, WALKERTON, KING CITY:
☎ : 624-5817 (Mrs. 차)

좋은투자기회
30년간 이룩해온 약국과 빌딩 세일 서쪽끝에있음.
우체국 포함 ☎ : 781-2560(Mr. BALIAN)

바 겐!
단돈 $15,000 다운페이로 스탁과 설비가 포함된 비지네스와 분리된 집을 살수 있읍니다.
아스킹 : $85,900 DUTTA나RICHARD·YAN에게 연락하세요. ☎ : B)752-7575 R)499-4246

밀크스토아 매매
주매상 : $6,000~6,700 리스 : 4년반+10년옵숀
2922 EGLINGTON E. ☎ : 431-4474

온토리오나 유럽에 있는 빌딩이나 회사를 사는데 투자하시기를 원하시면 연락바랍니다.
4521 PARK AVE. SUITE 320, MONTREAL, P.Q
MONTREAL MANAGEMENT SERVICES Co.
☎ : 849-0959, 7374~6

투자의 기회
브라말리이 에있는 메트로 토론토 북서쪽 100 에이커의 땅. 오락센터와 고등학교에 근접해 있음. 현재 발전기 로부터 2마일 거리에 있음.
☎ : 636-0963(6PM이후 연락바람)에이젠트 원치않음.

STORE FOR LEASE
NEW NEIGHBOURHOOD PLAZA
IN GEORGE TOWN ☎ : 749-8661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 751-9236, 757-2106 홍 진 표

미 용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킴스 미용실
☎ : B) 532-7094, R) 248-2437
(코리아 하우스 뒤)

매매 부동산

복덕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주택전문 ☎ : (B) 752-3111, (R) 298-2546
곽 석 용

보 석

다이아몬드·스타
공장가격으로 특별우대, 주문에 의해서 보증서 책임
신용본위 ☎ : 537-0432(B), 534-3346(R) MR. LEE

Young 6 JEWELLERY ●보석전문가(보석주문, 감정 뉴디자인, 개조, 수리일체) ●도매시세로 최고 품질을 최저시세로 매매(책임보증)B) 284-9325 R) 281-1954

시설및 수리

집수리·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 : 669-5784 미스타 심

TV 출장 수리
☎ : 431-0102 미스타 박

KIMBO ELECTRIC CO. :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보수, 가게신설, 용량증설, 전기일 일절 집, 가게, 공장
☎ : (B) 245-5544(PAGING)2790, (R) 255-2161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 : 438-3795 김 영 호

목공소 FineWoodwork
676-1173 769-9468 조 상 민
상점시설및 주택개조·사우나 설치
진열장·카운터·홈빠·책장등 가구제작

악기점

SOO PIANO SERVICE
조율 수리 SIMP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 : 222-4682 김 수 용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 : (R) 636-1430, (B) 783-6871
1547 EGLINTON AVE. W. 이 상 철

Modern Pianos
한일의 SOLOMON 피아노가 서울서 도착! 모던 피아노로 와서보고 구입하세요. ☎ : 665-5600
97NORFINCH DRIVE, DOWNSVIEW.

양 장 점

생터의상실
숙녀복, 파티드레스, 웨딩드레스, 단체주문환영
☎ : 535-4441 606 BLOOR ST. W. 디자이너 MR. 김

현의상실
각종양장 마춤전문 ☎ : 769-1559

이삿짐및 운송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라 운 수

인벤토리

INVENTORY
①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②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③ STORE 납세대비 INVENTORY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B)259-5822, 255-8301 (R)252-2963 MR. 오

—인벤토리—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 : 532-7741(B), 536-6250(R) 호 세 한

에어콘·히팅·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판매·수리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캐나다 최신급 자격증 소지
24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환 영

Palmer's 시설·판매·수리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 : (B) 746-3840~1, (R) 493-9945 김 봉 균

센츄리냉동 원종성, 이인식
☎ : 221-5441

KIM'S 냉장고, 에어콘
시설 수리일체
☎ : 749-3178 김 진 환

여행사

한국여행사
593 BLOOR ST W
(B) 531-4607
(R) 487-8088 성 낙 윤

천우여행사
720 SPADINA AVE.
928-3335 김현두

신세계여행사
712 BLOOR ST. W.
536-2155 김창범

서울여행사
631A BLOOR ST. W.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일여행사
621A BLOOR ST. W.
535-2377 유지원

자동차수리

ROGERS GARAGE ☎ : 651-9324(B)
자동차 수리 일체). 226-5430(R)
20 ROGERS RD. 변 달 원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 (BLOOR & 키플링)
☎ : B) 231-6951, R) 742-5408 오 세 호

카펫·카텐

카펫 크리닝 : 카펫·소파·체어·자동차시트
☎ :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럭키 DRAPERY
4141 DIXIE RD. (딕시×버남돌프)
☎ : 625-0698 최 원 보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펫·브라인드
2390 LAKESHORE BLVD. W.
☎ : (B)252-4857 (R)252-6602 유원덕

꽃 집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주문배달함
48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 751-5851 이 동 환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875 JANE ST. TOR.
*생화, 조화, PLANTS * GIFT취급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 주문 배달함.
☎ : B) 769-0609
R) 242-5194 여 정 용

크로스웨이(구 클레어리)
꽃 집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님파·김

정 은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꽃도매상 437 CARLAW AVE. TOR
*각종 CUT FLOWER. 생화. HANGING PLANT. TREE.
*꽃과 화분을 취급하는 스토어
*개업인사, 각종파티, 사무실용, 방문
☎ : 465-8167 (MR. 김, MR. 곽)

한 방 원

침 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안강용한약건재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진품용담●녹용●우황청심환●사향●경면주사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보제첩약및 각종병에 대한 처방약
6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 (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465 DUNDAS W.)
☎ : 363-3883, 363-2088 최 호 권

서울한의원
●30여년간 서울에서 한의원 경영
●대한한의사협회장외 한의학발전공로표창장10여회 수상
●진료과목 : 한방내과·신경과·부인과·침구과·산후보약
주소 : 10 Blackfriar Av #216 Weston, Ont. (Kipling×Dixon)
☎ : 247-9347 한의사 : 김 장 석 (왕진함)

회계사무소

R.I.A. ACCOUNTING & TAX 김인규 844-0178

공인회계사 이 명 세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AUGA 전화 : 273-7300

YOUNG C. LEE M. B. A. R. I. A. "METRO WIDE" ACCOUNTING & TAX SERVICES
●8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현CA Office근무중
●BOOK KEEPING & ACCOUNTING
●MANAGEMENT CONSULTING 이 영 철
●INCOME, TAX PREPARATION ☎ : 239-6802

태 권 도

손영수 태권합기도장 :
2186 BLOOR ST. W. (사범 : 손영수)
(AT RUNNYMEDE써브웨이) ☎ : 763-1155

박종수 태권도장(사범 박종수)
719 YONGE ST
☎ : 961-7100

임송학 태권도장
교포들에게 반액으로 봉사
1963 WESTON RD. (1층)
☎ : 247-7577 (웨스톤×로렌스) 로부로 앞

기 타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 촬영
○각종카메라·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증명사진
619 Bloor St. W. Tor. ☎ : 534-1085 김 춘 황

새한칼라 현상소
●결혼 ●돌사진 ●각종 증명사진 ●회갑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 : 535-7772 630 BLOOR ST. W. TOR

통닭.오뎅 한국인의 빈대떡, 통닭 전문 : 각종 샌드위치 주문환영
☎ : 537-0432 미스타 리

PICTURE FRAME WAREHOUSE
각 종 액 자
82A REXDALE BLVD., REXDALE ☎ : 746-2120 조 혜숙

니폰·비데오 많은 한국테이프가 새로구입
주6일 오픈. 1993 DANFORTH AVE. TOR.
☎ : 698-0633 하마구찌

ZAP SUREKILLER 368-9018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무지개 칼라— 36 NEAPOLITAN DR. 438-4435
•VIDEO 촬영 •wedding
•commercial •wall decors

구 혼

1939년생 남자
결혼에 실패한 가족없는 여자원함
☎ : 742-1671 Mr. 유

사무실·점포 렌트

다운타운 가게 세 놓습니다.
채소및 꽃가게 하실분을 찾습니다.
☎ : 365-1489

안내광고를 원하십니까?

●2줄 1칸 …… 3 회 ………… $10.00
●2줄 1칸 …… 5 회 ………… $13.00
●2줄 1칸 …… 10회 ………… $26.00

50자 이내로 내용을 적으시고 아래주소로 보내주시면, 우편 도착 다음날부터 게재해 드립니다.

THE KOREA TIMES
1025 DUPONT STREET,
TORONTO, ONT.
M6H 1Z7

■중견女流短篇 내 밤에 등불 <11>

梁貴子 作
金光培 畵

〈갈채〉의 가수들이 하나를 크리스머스 캐럴을 부르기 시작하던 십이월의 한가운데. 하늘은 연일 낮고 음울했다. 구름속에 처박혀 낮도 제대로 못드는 부연 해가 시늉으로나마 흔적을 보이는 그런 날들이 잦아졌다.

눈이 오려나. 사람들은 머리칼을 휘날리며 달아나는 바람의 뒤꽁무니에 대고 인사처럼 그렇게 중얼거렸다. 밤이면 언제나 그랬듯이 거리의 쇼윈도 는 화려하고 눈부셨지만 불빛마다 얼음처럼 차가운 냉기만 느껴질 뿐이었다.

한동안은 낮과 밤이 뒤바뀐 생활의 연속이었다. 포장마차에서 돼지고기 볶음 구워놓고 밥병의 소주를 마시는 것으로 하루를 마감하고는, 이튿날 해가 기울도록 냉랭한 방안에서 뒹구는 생활.

거리의 여자들처럼 내 궁상은 아주 알맞게 익숙해져서 조금쯤은 삶을 향해 냉소를 보낼 수도 있게 되었다.

전화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기는 했었다. 하지만 자꾸 숨으려드는 그녀앞에서 그 약속은 얼마나 무력했던가.

이모란는 여인의 전갈이 어떠했는지 승희는 그 이후 나타나지 않았다. 한번의 전화로 벌써 닷새째 기척도 없는 여자.

다시 한번 공중전화로 달려가고 싶지만 이번에는 영영 기척이 없을까봐 나는 가슴을 죄며 기다리고만 있었다.

〈갈채〉의 입구를 나서면서는 그녀가 늘 서있던 자리를 애써 외면했다.

골목 어귀 외등의 그림자를 볼때마다 얼음의 매서운 바람이 바지가랑이 속으로 뛰어들었다.

이제 겨우 겨울의 중간을에 섰을 뿐인데, 그런데 우리들은 지금 무엇인가. 아무것도 아닌 사이. 있을 수 있는 어떤 일도 없었다.

다만 서로의 내일에 대한 염려와 지난날을 함께한 추억 몇가지, 그것들을 조금씩 나누어 가진 채, 이렇게 말할까. 헤어졌어. 앞으로도를 건강 빌께.

사람들은 삶의 피로들을 견디듯이 추위를 견디어 나가리라. 해빙이 되고 봄이 올이 바스락거리며 되살아나면 고 누군가를 그리워하여 겨울이여, 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은 잔혹한 시련이었고 그래서 더욱 견디어야 하는, 우리들의 운명같은 것이 아닐까. 이제 승희, 그녀는 나의 저음같은 여자였다.

승희가 나타나지 않는 며칠동안 혼자서 이 세상을 다 지키는 기분이었다. 이미 잊고 있었던 모든 얘기들이 밤이나 낮이나 불쑥불쑥 내게로 덤벼들었다.

어린 시절의 얄궂었던 기억에서부터 내 생활의 담벼락에 이끼처럼 달라붙었던 모든 추억이 시시콜콜 떠올라서 나의 얼굴은 회상의 빛깔로 잠시 얼룩이 져 버렸다.

꿈이 있었다. 젊음이 만만하던 대학시절엔 그래도 꿈이 있었다. 적어도 이 삼년만 남의 회사에 있고나면 내 사업을 해보리라. 밑에 놓인 사닥다리를 사다리로 삼지않고 꼴꼬부 힘을 합하여 사업을 일으키리라. 이익의 적당한 분배, 활력 넘치는 대외활동, 조촐하지만 아담한 집엔 아내와 아이들의 웃음이 넘치리라.

하지만 그 모든것은 이렇게 뒤죽박죽이 되어버렸다. 나는 오늘날까지 지저분한 기타가 휘저내는 애조어린 노래가락의 선율에서 못 벗어나고 있지 않은가.

아아, 더 이상은,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어. 무엇이든, 누구든 나의 이 갑갑한 생(生)에 쐐기를 박아주렴. 이 지리멸렬한 생에 날카로운 화살이라도 쏘아주렴.

❖가장 效果的인 廣告媒體
주간女性
(416) 533-2861

"그이가 걸쳐준
밍크의 따스함 속에서
나만이 짜증스러웠던 날들,
울어버렸던 날들이
웃어버린날로 변했읍니다.

12월9일~12월30 일까지
전품목40% 가격인하.
크리스마스 밍크 대매출.

밍크 Sale

40% OFF

밍크·라쿤•마스크랏트•비버•페르샨람•마모드
•여우털•각종모피제품류
•남자용 쎄므반코트•런던 포그바바리30% OFF

크리스마스 !

유명백화점, 일류모피상점을 찾아다녀 보시면 보실수록 모피제품 선택의 어려움이 더욱 커집니다. 원피와 제품감별의 어려움, 디자인에서 제품과정에 이르는 불합리성, 일정제품에 대한 가격의 차이등 보이지않는 모피제품만이 가지고있는 특수성 때문입니다. 금번 대매출기간을 연장하여"최저가격에 대한 [illegible] 품질"을 가지고 자신있게 12월 말까지 대매출을 실시하오며, 모피전문가를 모시어 취향에맞는 디자인, 원하시는 싸이즈대로 주문제품을 완전 40% OFF해 드리겠사오니 이번기회를 놓치지 마시고"캐나다 최상품의 밍크제품을 최저가격"으로 장만하시어 연로하신 어머님께, 사랑하는 아내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시기 바랍니다.

모피조끼(VEST)

가게 안에서 따뜻하게
간편하게 입을수 있는
모피조끼가 준비되었음.
완전제품
주문에 의한 제품.

• 모든 모피제품은 1년동안 무료보험, 무료보관하여 드림.

빅 세븐선물센타

678 BLOOR ST. W. (고려식품 옆) 533—7966

영업시간 : (월~토)아침10시~밤11시30분 (일요일)12월13일과20일뿐, 12시~밤9시

카나다최고품질의 "마제스틱"밍크원단을 사용한 12만달러 상당의제품확보.

謹賀新年

밝은 새해를 맞아 존당의 만복과
하시는일 번창하시기를 비오며
삼가 신년인사를 드립니다·

이 건 학 · 이 영 두

LISBON AUTO COLLISION INC.

35 PRIMROSE AVE. TOR.

B.) 533—8507, 533—8508
R) 439—6548, 266—8925

모피

SPECIAL SACRIFICE SALE!!

밍크를 비롯한 여러가지 모피제품에 관심과 흥미를 갖고 있는 분들을 위하여 조금이라도 모피의 양과 질에 대하여 알려 드리고저 열심히 뛰고 있읍니다.

좀더 폭넓게 양질의 밍크, 최고의 제품을 가장 적당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엄선한 알찬제품만을 가지고 **SPECIAL SACRIFICE SALE**를 하오니 언제든지 찾아 오셔서 입어보시고 구경하시기 바랍니다.

록키모피 정 승 규

12월12일부터
20일까지 !
AM10 :00~PM5 :30
12월13일(SUNDAY)
12월20일(SUNDAY)
OPEN합니다.

특별사은!

SALE 기간중 밍크코트 또는
쟈켓을 구입하시는 분에는
밍크타이(사진)를 —MAS
선물 드립니다。

■최고급 밍크코트, 쟈켓
(BLACK GLAMA MINK MAJESTIC MINK)

■각종 FOX 쟈켓
■머스크랏 쟈켓 ·
■라쿤 쟈켓
■각종 밍크스토올, 목도리
■각종 여우 칼라
■알라스카 SEAL VEST
■비버 쟈켓(SHEARED)

록키모피

315 ADELAIDE ST. W. 2ND FLOOR
TORONTO, ONT.

AM10 : 00~PM5 : 30

TEL: 366—4497